

에스겔 2

22-48

에스겔 2

2023년 12월 9일 초판 발행

펴낸이 강요섭 김광욱 이영란 정한조

펴낸곳 100주년기념교회

표지 이지영

교정 김미선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46

전화 02-332-9177

팩스 02-332-9175

비매품

새벽묵상

에스겔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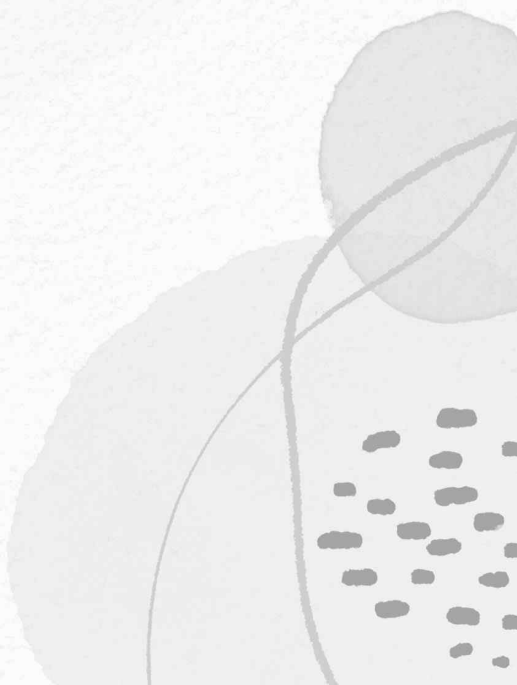
22-48

100주년기념교회

새벽묵상

에스겔 2

22-48



차례

에스겔 22:1-31
에스겔 23:1-49
에스겔 24:1-27
에스겔 25:1-17
에스겔 26:1-21
에스겔 27:1-36
에스겔 28:1-26
에스겔 29:1-21
에스겔 30:1-26
에스겔 31:1-18
에스겔 32:1-32
에스겔 33:1-33
에스겔 34:1-31
에스겔 35:1-15

에스겔 36:1-38
에스겔 37:1-28
에스겔 38:1-23
에스겔 39:1-29
에스겔 40:1-49
에스겔 41:1-26
에스겔 42:1-20
에스겔 43:1-27
에스겔 44:1-31
에스겔 45:1-25
에스겔 46:1-24
에스겔 47:1-23
에스겔 48:1-35

1

내가 찌꺼기가 되었나니

에스겔 22:1-31

1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3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4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 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5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6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에 있었도다 7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8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9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10 네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11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12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3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뻐을 쳤나니 14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르리라 15 내가 너를 못 나라 가운데에 흘리며 각 나라에 헤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16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17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8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불 가운데에 있는 낫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보다 19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20 사람이 은이나 낫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 불 속에 넣고 불을 붙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노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21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붙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22 은이 풀무 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23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4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25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26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27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28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술을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29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30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의무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바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에 근거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겔 20:11-12)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쾌락입니다. 욕망대로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살자고 이웃을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다에 대해 에스겔서 21장에서 하나님은 칼의 비유를 들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20장에서부터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죄(2-16, 23-31)

(3b)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별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우상을 섬기면 제일 먼저는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만 더럽혀진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더럽혀진 사람은 타인에게 해를 가합니다. 이를 본문에서는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렸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라고 하지 않으시고, ‘피 흘린 성읍(2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에 더 이상 평화는 없습니다. 오직 서로를 해(害)하여 선혈이 낭자한 죄악의 도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더는 묵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모두가 입에 담

기에도 더러운 성이라고 조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4-5절).

고관들의 죄와 심판(6-16)

평화의 도시이어야 할 예루살렘이 더러운 죄악의 피로 물들어버리게 된 것은 지도자(고관)들이 하나님을 잊고(12절) 권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6, 새번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각기 자신의 권력을 믿고, 네 안에서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

지도자들을 현혹하는 우상은 권력입니다. 권력을 믿는 순간 권력에 취하게 되고, 결국에는 타인을 해치는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권력을 믿는 지도자가 행한 죄악들을 7-12절에 낱말이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치고, 남을 모함해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학대했으며, 고리대금으로 이웃을 억압하고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게다가 성전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산에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성적으로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난잡한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태평성대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존폐가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추구하고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고관들

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13절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3, 새번역) 네가 착취한 불의한 이익과 네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 때문에, 내가 분노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버리고 있다.

그런데 23절 이하에 의하면, 고관들은 물론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온갖 범죄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고관, 백성들의 죄와 심판(23-31)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은 25절처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28절처럼 ‘고관들의 편에서서 거짓으로 예언하여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였습니다’. 또한 ‘과부가 많아졌다(25절)’는 것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과 끝까지 투쟁하도록 거짓 말씀을 전해서 많은 장정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백성들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들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더럽히고, 심지어는 안식일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26절). 백성들은 서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온갖 불의를 자행하였고, 자신들보다도 처지가 더 어려운 나그네를 상대로 불의를 행했습니다(29절).

이처럼 이스라엘의 범죄는 종교 지도자부터 정치 지도자는

물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만연하였습니다.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패역함은 마치 멸하기 전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목회자와 종교계가 타락하면 한 국가의 쇠망으로 직결됩니다. 고려말 불교의 타락으로 고려가 무너졌고, 조선말 유교의 타락은 조선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가톨릭의 타락은 중세를 근세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경우 과거와 비교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사회적 상식조차도 통하지 않고,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것처럼 행동하는 일부 목회자와 교회로 인해 성도들은 물론 이 사회의 구성원들조차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범죄의 소굴로 전락해 버린 예루살렘을 향해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31절)’라고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풀무 불 비유(17-22)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셨는지를 ‘풀무 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20)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 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노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말라기 4장 1절에서 ‘용광로 불같은 날’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교만한 자는 지푸라기처럼 불살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가라지,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범죄자들을 풀무 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마 13:41-42)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처럼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쇠 찌꺼기’라고 하십니다.

(18)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는 쓸모도 없는 쇠찌꺼기이다. 그들은 모두가 은을 정련하고, 용광로 속에 남아 있는 구리와 주석과 쇠와 납의 찌꺼기이다.

본문을 확대하여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은으로 제련하셨는데, 이제 보니 전혀 쓸모없는 불순물인 쇠 찌꺼기로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은의 산출 방법이 금보다 어려웠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은이 금보다 귀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은은 일반적으로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순결한 은으로 제련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그들은 순결하지 않고 쓸모없는 쇠 찌꺼기로 변질하여 버렸습니다. 찌꺼기나 불순물과 같이 쓸모없는 것은 버리면 됩니다.

도예가가 한 작품을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모릅니다. 흙으로 반죽을 만들고, 물레로 형태를 만든 뒤,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서 굽습니다.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지만, 최종 작업인 가마 작업에 가장 많은 공을 들입니다. 온도를 검사해가며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가마를 열었을 때 도자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도예가는 도자기를 깨버리고 새로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쓸모없는 쇠 찌꺼기를 모아서 다시 풀무 불에서 녹인다고 하십니다.

(21-22)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 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본문에서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풀무 불로 비유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본문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찌꺼기라 할지라도 다시 풀무 불에서 녹이면, 은이 나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계

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도예가처럼 아담과 하와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못났을지라도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올 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눅 15: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동구 밖까지 나와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기에 멀리서 오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애지중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온 탕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찌꺼기와 같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회개의 세례를 통해 은처럼 정결하게 되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우리가 아직도 집을 떠난 탕자로, 또는 돌아오고 있는 탕자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이처럼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그들은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면서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그들이 왜 숨게 되었는지, 즉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낱알이 밝히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과 같이 순결한 탕자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스겔 22장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 역시, 오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투영해봄으로 하여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미 성령님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수준이 아닌 진정으로 회개한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온전한 회개의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로부터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은을 제련하고 남은 쓸모없는 쇠 찌꺼기와 같이 사랑받을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와 같이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쇠 찌꺼기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는 탕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겨있는 탕자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아 은과 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의 죄악 된 모습이 투영되었다면, 단순한 자복의 수준이 아닌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2.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3. 리더(지도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본문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범죄행위로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5.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2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 23:1-49

1 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3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놀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4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5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앗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6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7 그가 앗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 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8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 때부터 행음함을 마지아니하였느니라 9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앗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10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11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하므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12 그가 그의 이웃 앗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

년이었느니라 13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하므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14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15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썼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16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17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18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19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20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21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네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22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23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브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 한 모든 앗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24 그들이 무기와 병자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25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 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앞드러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26 또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27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28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29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
 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네 음행의 벗은 몸 곧 네 음란하며 행음하
 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30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
 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31 네가 네 형의 길로 행
 하였으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32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
 씌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
 과 조롱을 당하리라 33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
 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34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
 어진 조각을 씹으며 네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35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
 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으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36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리와 오홀리버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37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문했으며 또 그 우
 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 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38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내 내 성소를 더럽히
 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39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
 령게 행하였으며 40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
 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41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42
 그 무리와 편히 지껄이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43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44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 같

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45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46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47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48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49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은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597년경에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2차 침공을 하여 많은 사람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그때 바벨론 포로로 함께 끌려갔으며, 그 사건을 기점으로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에스겔 예언자의 사고 밑바닥에는 항상 제사장다운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인 23장 말씀은 22장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확증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16장에서 예루살렘의 행음 대상이 애굽, 앗수르, 갈대아라고 책망하며(16:26-29), 심판이 선언되었던(16:35-43) 것처럼, 오늘 본문 23장에서도 유다와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은 두 자매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행음 때문에 공개적인 처벌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 혼관계의 은유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행음 한 것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음란한 두 자매에 비유함(1-10)

1-10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음란한 두 자매에 비유하며, 언니 오홀라의 음란과 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3-4)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놀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나라에서 갈라졌기에 한 어머니에게서 낳은 두 딸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매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음란한 행위로 비유합니다. 두 자매 중에 언니인 오홀라는 통일왕국 이스라엘에서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동생인 오홀리바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4절). 그리고 어머니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기 전 통일 왕국이나 출애굽의 경험을 공통된 기억으로 갖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합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 즉 그들은 음란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영적으로 죽어야만 하는 확실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는 언니 오홀라의 음란과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오홀라는 어린 적에 이미 애굽에서 행음한 경력을 갖고 있었으며(3, 8절), 성인이 되어 여호와와 결혼하여 자녀들도 낳았지만,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홀라는 앗수르의 잘생긴 청년과 행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오홀라를 많은 사람 앞에서 발가벗긴 채 수치를 당하게 하고 자녀들을 빼앗기게 하였고 칼로 죽임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앗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동생 오홀리바의 음란과 판결(11-35)

(11)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하므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동생 오홀리바는 언니 오홀라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했기에 땅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고 남편에게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음란함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앗수르 사람뿐 아니라 바벨론 사람과도 간음하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께서는 오홀리바의 음란함을 끔찍하게 심판하십니다.

(25-27)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 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엮드러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오홀리바의 몸 일부를 절단하며 많은 사람 앞에서 옷을 벗기고, 자녀들을 빼앗고 남은 자들을 불에 태우며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오홀리바의 죄악과 심판을 보며 하나님ی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고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죄라도 죄는 결국 사람을 타락시키고 죄의 노예, 죄의 중독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죄가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주는 것 같지만, 죄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립니다. 죄는 나중에 목적을 달성하면 철저하게 인간을 짓밟아 버리며, 오늘 말씀의 결과처럼 엄청난 수치와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여호와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행음의 길로 가게 된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첫사랑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때 늘 신희처럼 애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부부는 결코 불륜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나누었던 첫사랑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 첫사랑의 잊어버림은 죄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고 타락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인생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첫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방법입니다.

음란한 두 자매의 죄악과 결말(36-49)

36-49절 말씀은 음란한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를 통해 여호와를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말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상세히 말합니다.

(37)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문했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남아 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행음하다’라는 동사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앞
단락에서는 행음의 대상이 이방 나라였지만, 37절에서는 우상을
행음의 대상으로 분명히 표현합니다.

(39)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니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에서 ‘자녀를 죽여’ 우
상에게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드리는 인신제사
를 분명히 엄격하게 금하셨지만, 그들은 그 죄악을 다른 곳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에서까지 뻔뻔하게 행하는 악랄함을 보였
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드렸다는 것은 몰렉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하나님
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할례를 부정하고 자신의 자녀들이 몰렉
신의 것이라고 선언해버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는 엄청난 모
독감을 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가증스러운 악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에 진노하신 여호와께는 이제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
하십니다.

(46-48)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우상숭배(37절), 안식일을 범한 것(38절), 성소를 더럽힌 것(39절), 이방을 의지한 것(40-41절), 간음한 것(42-44절), 무고한 피를 흘린 것(45절), 아이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것(47절) 등의 책임을 물어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무리를 불러와 그들을 약탈하고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들의 자녀들도 죽이고 집들까지 불태워 버리십니다. 두 자매의 죽음과 이러한 심판은 다른 모든 여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음행을 본받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가 됩니다.

(49)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에스겔서 특유의 공식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제발

너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나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 여호와’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명확한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 여호와’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참 험작하고 너무 좁아서 1명이 고개를 겨우 숙이고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불편한 길로 가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 여호와’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며 넓고 편안한 자동문의 길로 가려고 했지만, 그러한 무리들 속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 여호와’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던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늘 사랑하고 신뢰하며 오늘도 좁은 길로 기꺼이 갈 수 있는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음란했던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아내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나의 만족을 위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음란한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아닌지, 참 두렵고 떨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들을 잘 지키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넓고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좁고 험악한 길이라도 기꺼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 여호와'임을 인정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음란했던 여인을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죄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묵상해 봅시다.

2. 죄는 참 달콤하게 보이며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면 언제였는지 묵상해 봅시다.

3.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만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음란함’으로 보십니다.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이 ‘음란함’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하나님이 주 여호와’임을 알고 매일 매일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24:1-27

1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
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3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4-5 건
후에 물을 붓고 양 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
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
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
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6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
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
다 7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음이여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
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8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
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9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
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10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11 가마가 빈 후에
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늦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12 이 성읍이 수고하므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13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
 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14 나 여호와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5 여호와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6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
 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17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18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19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20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
 게 임하여 이르시되 21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
 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 둔 자녀를 칼에
 엮드러지게 할지라 22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비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23 수건으로 머리를 동
 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
 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24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25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26 곧 그 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 주지 아니하겠느냐 27 그 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녹슨 가마의 비유(1-14)

오늘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온 마지막 장이며, 이 말씀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히고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곧 B.C. 588년 1월 15일에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이날은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오늘의 이름’ 곧 날짜를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던 것입니다.

(1-2)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에 사용된 히브리어 ‘짜마크’는 제사 드리기 전 제물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는 동작에 사용했던 말입니다. 다가오는 바벨론 군사들 앞에 예루살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무력한 상태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녹슨 가마 비

유를 통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3-5)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 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매우 기분 좋은 양고기 요리 장
면처럼 보입니다. 가마 하나를 꺼내 물을 붓고 양의 좋은 부위
들을 넣어서 나무를 쌓아 뼈가 무를 정도로 잘 삶습니다. 냄새
는 좋을 것이며 고기는 맛있을 것입니다. 실은 가마에 관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꺼내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스겔 11
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기서 백성들의 말은 자신들이 좋은 고기가 되고 예루살렘 성
은 가마가 되어 적들의 공격에서 자신들을 지켜 줄 것이라는
확신에 찬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5절의 이야기
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 좋게 듣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암,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리는 좋은 고기처럼 예루살렘 성이 우
리의 가마솥이 되어 우릴 지켜줄 거야.’ 그러나 이것이 큰 착각
임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6-8)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음이여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한 가마로 생각했던 예루살렘은 실
상 녹슨 가마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녹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백성들의 악한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가마 안에 있는 고
기들은 덩이마다 꺼내져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예루살렘 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
지하며 신뢰하던 것, 실상은 썩은 동아줄이었건만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
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삼면이 골짜기로 이루어져 천혜의
요새였던 예루살렘도 실은 녹이 슬어 그 고기를 지켜줄 수 없
었듯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견고할 것이라 믿고 의지하던 녹슨
가마는 언젠가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9-11)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즐기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뚫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싼 바벨론 군사들은 토성을 쌓고 1년 6개월간 압박을 가했으며 성안에는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마치 가마 안에 들어있던 고깃국이 녹고 졸여져 뼈까지 검게 태워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배고픔으로 바싹 말라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며, 회복의 때가 오기까지 황폐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돌이키지도, 아끼지도, 뉘우치지도 아니하시고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오래 참으셨고 쌓아두신 분노가 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한 것을 상실하게 될 것임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그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15-18)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에스겔은 이미 많은 것을 상실했습니다. 제사장이 될 것을 기대하고 훈련받던 도중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꿈꾸던 제사장 직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으며 마음대로 말도 할 수 없었고 의식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신의 삶이 메시지가 되도록 제한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와 젊은 시절부터 고락을 함께하였던 아내마저 데려가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두에게 아내는 소중하지만 에스겔에게 아내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 직분을 상실하고 미래도 불투명한 에스겔의 곁을 성실히 지켜주던 아내였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통해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던 힘든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저녁을 차려주며 고생했다고 함께 기도하며 그 외롭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을 것입니다.

고난을 함께하며 삶과 신앙의 유일한 동반자였던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이 그 아내를 깊이 사랑했던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의 눈에 그의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시슴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아내를 데려가시겠다고 하실 때 에스겔이 느꼈을 슬픔과 절망은 헤아리기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끝내시지 않고 에스겔의 애도할 권한까지 빼앗아가십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신발도 벗지 말고 머리에 수건을 풀지도 말고 사람

들이 위로하기 위해 가지고 온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조용한 탄식만이 허락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에스겔의 아내는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이 본문에 에스겔의 슬픔, 눈물, 상실의 아픔은 한 줄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탄식만 허락된 에스겔은 그날 눈물을 흘리지 못하여 마음으로 울었고 옷을 찢지 못해 마음을 찢었고 슬픔의 절규 대신 탄식하며 고통을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에스겔은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눈에 큰 기쁨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되 그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시며 그 아픔을 표현하실 수 없어 깊은 어둠을 보내사 탄식하셨던 하나님의 고통 속으로 에스겔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길이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이며 좁고 험악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소망의 길이고 부활과 생명이 있는 길이며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시고 기다리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애도의 표현도 하지 않았습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하라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19-23)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 둔 자녀를 칼에 얹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두 가지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이 성전은 건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과 기쁨과 아낌이 되었던 건물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침공 때에 예루살렘 성벽과 함께 성전도 무너져 불에 타고 그 성물은 바벨론의 노략물이 되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예루살렘 성에 그 자녀를 놓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도 바벨론 사람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의 시체도, 예루살렘의 성전의 무너진 모습도 만지거나 보지 못한 채 큰 충격에 휩싸여 장례를 치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아내가 죽을 때 에스겔이 하였던 것처럼 탄식만 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수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소중했던 모든 것을 상실하며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평안과 기쁨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에스겔이 좁은 길을 걷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통을 겪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고통과 고난이 가득하지만, 그것을 겪게 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중에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고난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유로 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어가며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거룩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24-27)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 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에게 이 모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후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사람이 바벨론으로 와서 그들에게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 예루살렘이 무너졌음을 알릴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에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맡기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에스겔은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되어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감 없이 선포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에스겔과 이름도 알 수 없는 그의 아내는 죄악으로 옮겨진 포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과 그의 아내의 삶을 보며 그들이 희생하고 잃어버린 것만 주목할 때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되고 회개하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들의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양화진에는 수많은 에스겔과 그 아내가 있습니다.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표징이 되어 희생과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에스겔처럼 식민지와 전쟁의 그늘로 얼룩진 이 땅에 사랑하는 가족과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찾아온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에 많은 이들은 에스겔처럼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거나 자신이 먼저 떠나야 했습니다. 그 희생과 고난이 거름이 되어 이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고 그 열매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표징이 되기 위해 좁고 험난한 길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표징이 되는 삶,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도록 불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처럼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녹슨 가마와 같이 사라지고 무너질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좁은 길의 끝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에스겔과 그 아내처럼 고난과 희생이 찾아올 때도 세상 가운데 표징이 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올 수많은 백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또 그 아내가 죽었을 때 애도할 수 없었던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을 살펴보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시다.
2.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도 회개하지 않음으로 나라와 성전과 자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자신, 가족,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회개할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묵상해 봅시다.
3.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방패라고 생각되었지만 실은 녹슨 가마에 불과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예루살렘 성같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해 봅시다.
4.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나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며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답답함 가운데서도 묵묵히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이웃들에 대한 심판 예언

에스겔 25:1-17

1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3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4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을 넘겨 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에 진을 치며 네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5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 떼가 늙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6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7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퍼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 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 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8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9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못과 비알므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10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11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2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13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데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14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5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16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17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암몬을 향한 심판 예언(1-7)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둘러싼 다른 나라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여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5장은 유다의 동편에 있었던 암몬부터 시계 방향으로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이 드러나 있습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 위치했고, 그 민족의 근원이 아

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어서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 시대부터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대립해왔습니다(삿 10장; 삼상 11장; 삼하 10장). 이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리된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북쪽 영토 중 일부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시키기도 하고(렘 49:1), 바벨론과 함께 남유다의 여호야김을 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왕하 24:2).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암몬의 왕 바알리스는 총독 그달리야를 암살하고자 이스마엘을 보내기도 했습니다(렘 40:14).

암몬이 이처럼 수백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도발했던 목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불행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데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은 여러 일을 모의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더럽혀지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암몬이 지은 죄의 핵심입니다(6절).

(6)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주의 백성에게 지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데, 친히 암몬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핍진한 형편 가운데서 서로 먹고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본

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나에게 별다른 실익이 없음에도 오직 이웃의 불행으로 여러 일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뺏속까지 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결말이 오늘 암몬의 결말과 같을 것입니다. 실제로 암몬은 그들이 살았던 도시의 이름만 남아 있을 뿐, 민족 자체가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암몬의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 내 안에 어긋난 욕망을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주시기까지 견딜 필요가 있습니다.

모압을 향한 심판 예언(8-11)

모압도 암몬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지만 늘 형제였던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유다보다 먼저 바벨론의 통치권 아래에 들어갔던 모압은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자 바벨론을 도와 유다를 침공하기도 했고(왕하 24:2),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면서도 멸망의 걸면만 지켜보며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8절)’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8)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향한 조롱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자기 자식을 혼내는 힘센 부모 옆에서 옆집 아이가 자기 아이를 조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조롱받으신 하나님은 이에 대한 심판으로 모압의 대표적인 세 도시인 벳여시못, 바알므온, 기라다임을 동방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라 말씀합니다(10절). 모압은 유다가 멸망하기도 훨씬 전에 바벨론에 패배한 처지였으면서,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며 승자 편에서 패배자를 욕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이겠습니까? 곤고한 상황에 놓인 주변 사람들, 불행 당한 타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내면이 모압과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보듬어 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옆의 승자 옆에 빌붙어 그의 힘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나보다 없이 사는 이들을 짓밟을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승자와 패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우자와 배우지 못한 자 등 세상에서 통용될 만한 기준을 가져와서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지만, 이처럼 아파하는 이웃을 보듬어 안지 못하는 일은 더욱욱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나는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습니까? 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습니까? 그저 남들이 가진 세상 논리에 공명하여 일방적으로 그들을 판단해온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품고 사

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두신 이웃들에게 신실한 삶을 이어가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모압의 조롱을 받았던 유다를 떠올려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서도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 외교적인 외줄 타기에 골몰했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평화와 안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삶의 무게를 인식하지 않은 결과로 받은 조롱이었습니다.

이 조롱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좇으며, 그것을 가치 기준과 삶의 방향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좁다고 하여도 사람을 의지하며,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늘 믿음의 길을 만드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아무쪼록 모압의 조롱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지 않도록 말씀 앞에 진중히 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에돔을 향한 심판 예언(12-14)

유다의 남동쪽에 위치했던 에돔은 역사적으로 늘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에돔을 복속시킨 후에 수비대를 두는 한편(삼하 8:13-14), 홍해로 가는 무역로와 광산을 확

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후에도 유다가 영향력을 지속하여 행사했지만, 에돔은 힘을 비축하는 대로 유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히 B.C. 586년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은 방비할 여력이 없었던 유다의 남쪽 지역을 습격했습니다(시 137:7 참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침공을 피해 도망가는 유다 백성들을 습격하고, 원수에게 넘기기까지 했습니다(욘 10-14). 그 결과 에돔은 남쪽 경계인 데만에서부터 북쪽 경계인 드단까지 전 국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13절).

(13-14)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퍼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데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얹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 읽은 대로 ‘이스라엘의 손’에 의한 원수 갚음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B.C. 164년의 마카비와 B.C. 120년의 할카누스의 정복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에돔은 앞에서 언급된 암몬과 모압보다 혈연으로는 이스라엘과 훨씬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암몬과 모압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라면, 에돔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유다가 약해지기를 기다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타인의 불

행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저열한 일을 에돔이 저지른 것입니다. 형제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오히려 남보다 더 못한 관계를 만들어서는 곤란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부를 때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룬다는 의미로 지체라는 말도 쓰지만, 통상 형제, 자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모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한 새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연합함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인 우리가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삶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혈육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어 싸울 때 부모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픔니까? 이를 기억하고 나와 가까운 형제들, 교회의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블레셋을 향한 심판 예언(15-17)

15-17절은 블레셋을 향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해양 민족으로 사사 시대부터 왕정 초기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블레셋의 계속된 위협은 결국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는 단초가 되었고, 사울을 거쳐 다윗 때에 블레셋이 정복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블레셋

은 그 힘을 점점 키워갔고, 여호람(대하 21:16-17), 아하스(대하 28:18), 히스기야(왕하 18:8)의 통치 때에는 그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애돴이 유다에게 한 것처럼 유다를 괴롭혔는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15절).

(15)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오랜 원한으로 복수심에 불타 도에 지나치게 보복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블레셋의 죄였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원한’이라는 히브리어 ‘에이바’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여인과 뱀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만들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을 가져다준 결정적인 존재가 사탄 곧 뱀이며,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여인입니다. 이 둘 사이는 회복될 수 없는 깊은 원한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를 표현할 때 쓰인 단어가 블레셋과 유다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유다에게 갖고 있었던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한에 사무쳐 가혹하게 원수를 갚은 블레셋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보복을 그대로 갚아주실 것인데, 사람이나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갚아줄

것이라 말씀합니다(17절).

(17)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크게 갚으신 결과, 그들은 마카비 시대 이후에는 살았던 도시 이름만 남기고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성경공부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생사를 걸고 전쟁해왔던 역사를 어느 정도 살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어떤 감정을 갖고 서로를 대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보다 가까이 사는 사람 중에 사이가 좋지 못한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블레셋처럼 자기의 원한을 붓물 터지듯 쏟아부어서는 곤란합니다. 늘 갈등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네 개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보면서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여러 관계가 떠오릅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갈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운행하시며, 죄에 대한 심판을 미루시지 않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을 나의 것으로 답습하지 않으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을 환대하고 포용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처지가 어려운 이웃의 고난을 기회 삼아 나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오랜 기간 묵혀왔던 마음의 짐들을 주님의 은혜로 털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따르는 길에 방해물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유다가 멸망 당할 때, 암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절)
2. 유다가 멸망 당할 때, 모압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8절)
3. 에돔은 어떤 죄를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까? (12절)
4.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 지었던 죄는 무엇입니까? (15절)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에스겔 26:1-21

1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3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
 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4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 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5 바다 가운데
 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
 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 거리가 될 것이요 6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
 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7 주 여호와께서 이같
 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
 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8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
 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추는 것이며 9
 공성퇴를 가지고 네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10 말이 많
 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
 는 것 같이 그가 네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
 리로 말미암아 네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11 그가 그 말굽으로 네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네 백성을 죽일 것이며 네 견고한 석상을 땅

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12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네 성을 헐 것이며 네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네 돌들과 네 재목과 네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13 내가 네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네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14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네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5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16 그 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 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17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향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18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임이여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19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네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20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 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21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인 26장에는 어제에 이어 이스라엘 주변국 중의 하나인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겨 온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심판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에스겔 25장에서는 암몬(25:2-7), 모압과 세일(25:8-11), 에돔(25:12-14), 그리고 블레셋(25:15-17)에 대해서 짧게는 세 절에서 길게는 여섯 절까지 그들의 죄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 대해서는 26-28장까지 세 장에 걸쳐 설명했고, 애굽에 대해서는 29-32장까지 네 장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이는 두로와 이집트가 다른 주변국들에 비해서 당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서북쪽 해변에 B.C. 2800년경에 세워진 도시 국가입니다. 두로는 시돈과 함께 페니키아로 불리며 항해, 조선회술이 발달해서 일찍부터 지중해, 홍해 및 인도양까지 미치는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富)를 축적한 고대 근동의 중요한 해양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복하지 못했을 정도로 군사력도 견고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같은 히브리 혈통이면서도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암몬, 모압, 에돔과는 달리 전혀 다른 민족인 두로는 이스라엘과

형제의 계약을 맺을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다윗 왕 시절에 두로 왕 히람은 백향목과 목수, 석수들을 보내 다윗 왕의 궁전을 짓게 했습니다. 이 관계는 솔로몬 시대에도 이어져서 두로 왕은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주었고(왕상 5:1-10), 솔로몬은 두로 사람인 히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의 돛기둥과 바다, 제사용 기물과 성전 기구들을 만들게 했습니다(왕상 7:13-47). 이에 대한 보답으로 솔로몬은 갈릴리 20개 성읍을 히람 왕에게 주었습니다(왕상 9:11-14).

이처럼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던 두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 온 지 '제 십일 년 어느 달 초 일(1절)'에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녹슨 가마의 비유'를 말씀하신 때가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24:1)'로 그날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한 날이었습니다. 포위당한 예루살렘은 18개월을 버티다가 함락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신 시기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얼마 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함락되기 전 예루살렘의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애 2:20, 4:10, 사 9:20, 겔 5:10).

풍전등화 신세가 되어버린 예루살렘(남유다)에 대해 형제 나라처럼 지냈던 두로는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2, 새번역) 두로가 예루살렘을 두고 '아하, 못 백성의 관문이 부서지고, 성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구나.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번영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했습니다. 기뻐한 이유를 본문은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두로가 번영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어떻게 두로의 번영으로 이어질까요?

두로는 애굽과 통상하기 위해서 남유다 영역을 지나가야 했고, 이때마다 통과세를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면 통과세를 내지 않고, 자유롭게 남유다 지역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기에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적도 오늘의 아군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아군도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에 놓여있는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 멸망으로 자국이 이익을 볼 것이라며 기뻐한 두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3-21)

(3)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해상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해양국가인 두로는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몰아치는 파도와 같이 여러 민족이 끊임없이 두로를 침략해서 파도가 지상의 모든 것이 다 쓸어가듯이 두로를 황폐하게 만들고, 백성들도 파도에 휩쓸려 다 사라질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11-12) 그가 그 말굽으로 네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네 백성을 죽일 것이며 네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네 성을 헐 것이며 네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네 돌들과 네 재목과 네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두로가 믿고 자랑했던 백성, 석상, 재물, 부, 성, 집 등 그 리고 하다못해 건축자재인 돌과 재목과 흙까지도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다 사라지게 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부와 영화가 영원할 것 같았던 두로의 멸망에

열국들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16) 그 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 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21)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앗수르를 시작으로 바벨론, 바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B.C. 332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함락되었으며, 약 3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노예로 팔려갔고 수천 명의 지도자가 처형되었습니다. 결국 두로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부귀와 영화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해양무역 국가인 두로의 멸망이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를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자 다음과 같이 꾸짖으셨습니다.

(마 10:21-22)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향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룩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실 정도로 진노하신 두로의 죄는 ‘남의 불행을 기뻐한 것’이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고소하다고 느끼는 심술궂은 마음’을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Shadenfreude)’라고 합니다. ‘손실’ 또는 ‘고통’을 뜻하는 ‘샤덴(Shaden)’과 ‘환희’ 또는 ‘기쁨’을 뜻하는 ‘프로이데(freude)’의 합성어입니다.

영국의 철학 교수인 피터 케이브는 저서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철학적 이유>에서 남의 불행을 고소하게 느끼는 심술궂은 마음인 ‘샤덴프로이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나가는 사람들에게 우연히 찾아온 행운들, 그 위치에서 마음껏 휘두르는 권력과 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던 기회들에 대한 불평등에 화가 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그 위치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코지를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양심상 해코지는 할 수 없고, 속으로 끄끙 앓고 있으니, 괜히 자기 배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승승장구하던 사람한테 우연히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말이지. 그러면 왠지 아픈 배가 씻은 듯이 나오면서 개운해집니다. 이 감정이 ‘샤덴프로이데’이며, 이 감정을 ‘세상의 평등에 대한 환희’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신이 나한테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감정을 갖게 된 이유는 생존경쟁에서 뒤처지

면 안 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타인의 불행에 안도감을 느끼는 본성은 진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고급 양복을 입고, 빙글빙글 지팡이를 돌리면서 산책을 하는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하늘을 날던 비둘기가 실례한 배설물이 그만 신사의 고급 양복 위에 떨어집니다.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대개 키득거리면서 웃는답니다. 신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도, 사람들은 고소해 한다는 것이지요.

저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A. Schopenhauer)는 샤덴프로이데를 ‘인간이 가진 감정 중 가장 악한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는 두로의 ‘샤덴프로이데’를 죄라고 지적하셨고, 이 죄로 인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 두로는 왜 이스라엘에 대해 ‘샤덴프로이데’를 갖게 되었을까요?

연구에 의하면 ‘샤덴프로이데’의 대상은 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잘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아프리카 난민들처럼 정말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소해 하지 않고, 오히려 동정하거나 연민을 가지거나 일부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 자체를 불편해합니다.

두로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했다는 것은 두로는 이스라엘을 높이 평가했고, 경쟁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의 소유자는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따라서 두로는 낮은 자존감의 소유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존감은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국가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두로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샤덴프로이데’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불행에 대해 이 감정을 갖는 것은 낮은 자존감 또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어느 순간 저보다 키가 커졌을 때, 부모인 제가 느끼는 감정이 ‘샤덴프로이데’일까요? 아닙니다. 제 키를 훌쩍 넘게 자란 자식을 볼 때, 자랑스럽고 잘 자라줘서 기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단순합니다. 제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우리가 신앙공동체에서 이웃에 대해 ‘샤덴프로이데’를 느낀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샤덴프로이데’를 갖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라는 서기관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답하셨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되,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웃은 문자적 의미인 이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실 때도, 십자가에 눕혀져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실 때도 계속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

서하소서. 저는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에 대해 긍휼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만민에 대해 긍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창조주이신 주님께서서 대속의 보혈로 구원해주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여 우리의 잘못된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 갑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거나, 좋은 일에 진심으로 기뻐해 줄 이웃을 찾아보기 힘들어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더 크게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목청을 높이며 이웃을 짓밟는 극히 이기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참이요 진리이신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인지하고 있을 때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내가 먼

저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샤덴프로이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진리의 좁은 문, 생명의 좁은 문, 기쁨의 좁은 문, 공허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가득한 ‘샤덴프로이데’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로마서 12장 14-21절 말씀의 좁은 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두로의 죄는 무엇입니까?
2. 두로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리셨나요?
3. '샤덴프로이데'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까?
4. 인간의 못된 본성을 버릴 수 있을까요? 만약 버릴 수 있다면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5.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주일 설교)는 총론에 대해, 내가 본문을 통해 깨닫고 결심한 각론은 무엇인가요?

6

슬픈 노래를 지으라

에스겔 27:1-36

1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3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 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4 네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음이여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5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음이여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6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음이여 깃뎀 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7 애굽의 수 놓은 가는 베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음이여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베로 차일을 만들었도다 8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음이여 두로야 네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네 선장이 되었도다 9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네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음이여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10 바사와 룯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음이여 네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네 영광을 나타냈도다 11 아르왓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음이여 네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12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너와 거래하였음이여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13 아완과 두발과 메섹은 네 상인이 되었

음이여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14 도갈마 족
 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네 물품과 바꾸었으며 15 드단 사람은 네 상
 인이 되었음이여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네 물품
 과 바꾸어 갔도다 16 너의 제품이 풍부하므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음이
 여 남보석과 자색 베와 수 놓은 것과 가는 베와 산호와 홍보석을 네 물
 품과 바꾸어 갔도다 17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상인이 되었음이
 여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18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음이
 여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19 위단과 아완은 길쌈
 하는 실로 네 물품을 거래하였음이여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
 이 네 상품 중에 있었다 20 드단은 네 상인이 되었음이여 말을 탈 때
 끼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21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네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숫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
 다 22 스바와 라이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됨이여 각종 극상품 향
 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네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23 히란과 간네
 와 에텐과 스바와 앓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24 이들
 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 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
 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네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25 다시스의 배는 떼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
 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26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
 게 함이여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27 네 재물과 상
 품과 바꾼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상인과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
 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임이여 28 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29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
 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30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

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며 재 가운데에 뒹굴며 31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베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32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33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음이여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34 네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음이여 35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36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음이여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픈 노래를 지으라

에스겔 27장은 25-32장까지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심판 예언 중 암몬(25:2-7), 모압과 세일(25:8-11), 에돔(25:12-14), 블레셋(25:15-17)에 이어 5번째 국가인 ‘두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26-28장까지 두로에 대한 예언을 하며 두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심판의 온전함을 보이기 위해 같은 문구를 7번 넣으며 문단의 연결고리로 사용합니다. ‘나 주 여호와와가 말하노라(아마르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문장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26장 3절, 7절, 15절, 19절, 27장 3절, 그리고 28장 2절과 11절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예언 이후에 ‘슬픈 노래’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슬픈 노래는 ‘애가’로서, 죽음을 애도하며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26장에서 두로 성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27장은 이를 슬픈 노래로 애도합니다. 28장 1-11절은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며, 12-19절은 그를 위한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 줍니다. 그러므로 27장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의도를 살핌과 동시에, 에스겔이 불렀던 ‘슬픈 노래’가 어떤 정서였을지 생각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아름답다 생각하는 이에게(1-11)

27장의 첫 번째 노래는 1-11절까지입니다. 에스겔은 두로를 한 척의 배로 비유합니다. ‘바위’라는 이름 뜻을 가진 두로는 해변가에 도시 절반 정도를 건설하고, 육지에서 800m 떨어진 바위섬에 나머지를 건설했습니다. 이는 해상무역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위로 된 섬 위에서 수많은 배를 만들어 바다로 보냈습니다. 많은 배가 항구를 떠났고,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거치며 사람들은 완벽한 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스닐의 잣나무로 만든 판자(5절), 레바논의 백향목 돛대(5절),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만든 노(6절), 깃딤 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민 갑판(6절), 애굽의 수 놓은 가는 베로 돛(7절),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베로 차일을 만들었습니다(7절).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을 사공으로(8절),

그밭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을 배의 틈을 막는 항해사로(9절), 바사와 룻과 붓과 아르왓 사람들을 용병으로 삼고(10-11절), 도시 중심에 모인 지혜자들을 선장 삼아 두로라는 ‘완벽한 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8절). 그리고 말합니다.

(3)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11) 아르왓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음이며 네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에스겔은 ‘온전히 아름답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고,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지나,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받고 건네주며 살아간 것뿐인데, ‘내가’ 이루었다고 자만하며, 자기 업적과 아름다움으로 공을 돌립니다. 비단 두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도 같은 노래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 2:15)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까지 ‘온전한 아름다움’은 오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이 정도 이뤘으면 충분하고 더 바랄 것 없다’고 생각 중이라면, 그것은 교만과 외면으로 눈이 가려져 심판을 앞두고 있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대로 ‘왜 세상과 우리 삶은 이리도 아름답지 않은지’ 직시하고 질문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러한 우리의 삶을 슬픈 노래 삼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꾸짖고 치유해 가실 것입니다.

타인과 공감하지 못하고 사치스러운 이에게(12-25)

두 번째 노래는 두로의 무역 상대들과 거래 물품들을 열거한 12-25절입니다. 해상무역 국가였던 두로는 타국과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를 맺었습니다. ‘바꾸어 갔다’와 ‘거래하였다’는 문구를 반복하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가 관계의 기준이었음을 알립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에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 궁전과 성전 건축을 도왔던 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에는 이익을 얻을 것이라 보고 기뻐합니다(26:2). 이익 앞에는 적도 친구가 되고, 친구도 발판이 될 수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의 성향이 아닌, 국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이유로 3절에서 그들을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종착점이 어떤 모습인지 노래를 이어갑니다.

다시스를 통해 각종 보화와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12절), 아완과 두발과 메섹을 통해 노예와 낫그릇을(13절), 도갈마 족속을 통해 말과 군마와 노새를(14절), 드단 사람을 상인 삼아 상아와 박달나무를(15절), 아람을 통해 남보석과 자색 베와 수놓은 것과 가는 베와 산호와 홍보석을(16절), 유다와 이스라엘을 상인 삼아 민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17절), 다메섹이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18절), 워단과 아완을 통해 길썬하는 실을(19절), 드단을 상인 삼아 말을 탈 때 쓰는 천을(20절),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을 손아래 상인 삼아 어린 양과 숫양과 염소들을(21절), 스바와 라아마의 상인들을 통해 각종 극상품 향 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을(22절),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앓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을 상인 삼아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을 묶어서 거래했습니다(23-24절).

이 구절에서 ‘사람이 상품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타국을 상인이나 손아래 상인으로 삼았다는 표현이 7번 등장하고 있다’는 점, 25절에서 ‘지중해 서쪽 끝에 있던 다시스의 배들에 무겁게 물건을 넣고(영화로 번역된 카바드는 무겁다는 의미) 때를 지어 옮기도록 시켰다’는 점, 17절에서 ‘유다에서 생산되지 않던 민넛 밀을 품목에 넣어 유다와 암몬이 한 번 무역하게 한 후에 거래할 정도로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해 치밀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했던(18절)’ 이유는 수많은 거래를 통해 ‘상품가치’를 추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인간을 사거나 파는 상품 또는 상인이라는 이용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기보다, 사치품 위주의 거래만 남습니다. 사치와 허영만 남고 인간 존중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좋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설명하며 ‘어떤 브랜드의 물건과 옷과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소비와 소유를 제외하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타인을 밟고 이용하느라 노예와 도구로 전락한 이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우월감에만 빠져 산다면, 우리 또한 슬픈 노래를 들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타인이 우리를 어떤 말로 설명해 주기 원하는지 돌아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몰, 적막, 통곡을 앞둔 이에게(26-36)

세 번째 노래는 26-36절입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아름다운 상태라고 여기고(1-11절) 주변 모두를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며 사치와 허영을 자랑하던 두로는(12-25절)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자랑거리로 여기던 바다 한가운데에서 예상치 못한 동풍을 이기지 못하고, 침잠해 사라질 것입니다(26-27절). 이스라엘에서 지중해로 불던 동풍의 특징은 한 번의 바람이 아닌, 기압차에 따라 지속해서 부는 돌풍이라는 것입니다. 수차례의

거센 돌풍은 매우 위험했습니다(사 48:7; 행 27:14).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23장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사 23:8)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사야를 통해 전한 경고를 듣지 않은 두로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재차 전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노래라는 형식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였던 에스겔이 갈 수 없던 두로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던 그들에게 미리 심판의 얘기를 불러 주신 것은 반드시 심판이 찾아올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임과 동시에 ‘비웃음과 공포의 대상(36절)’이 아닌 회개의 모범이 되어 달라는 사랑의 초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계속 듣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계속해서 몰아치게 될 돌풍뿐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며 번영과 확장을 추구하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선포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와 묵상과 기도,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경고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곳에서 동풍이 시작될 것입니다. 26-27절은 ‘바다 한가운데’를 두 번 사용하며 그들이 자랑거리로 여겼던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바다,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침몰할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1)

하나님께서서는 두로를 향한 노래를 에스겔을 통해 부르게 하십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2:8-10)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송곡이나 나라를 잃은 슬픔을 부르는 노래인 '애가',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애가들의 모음인 '애곡', 악한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과 억눌린 자에게 주어진 회복의 약속인 '재앙의 말'. 에스겔은 이 말씀들을 먹으며 체화시켜야 했습니다. 자기사랑이 극대화되고, 타인을 수단으로 여기며, 사치와 허영을 추구하고, 말씀을 지나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바른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24장 17절에서 아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해야 했던 에스겔에게 두로를 위해 애곡이라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묵묵히 자기 슬픔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승화시키고 타인을 위해 울어주었던 에스겔. 하

나눔께서는 우리 또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가며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하십니다(2절).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슬픈 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완전하다고 여기며 자기 아름다움에 빠진 이에게, 타인을 밟고 이용하며 사치와 허영에 빠진 이에게, 말씀을 지나치며 아직 괜찮다고 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이 노래의 첫 번째 청중이 바로 우리임을 인정합니다. 가사에 삶으로 음정과 박자를 붙여가며, 우리가 먼저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슬픔마저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자기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라 교만과 열등감 사이에서 삶을 소진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2. 타인을 밟고 이용해야 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3. 우리가 공감해야 할 타인은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4. 지금까지 지나쳤던 하나님 말씀과 경고는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5. 포로였던 에스겔이 타인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짓기 위해선 먼저 자기 슬픔을 바른 방향으로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 슬픔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28:1-26

1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3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4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5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6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7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8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9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10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11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2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총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 내가 옛적에 하나님

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
 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14 너
 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
 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 네가 지음을 받
 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
 다 16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
 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
 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7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
 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너
 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 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18 네
 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므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
 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19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임이여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20 여호와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1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22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
 적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
 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
 인 줄을 알지라 23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
 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었드러질 것인
 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24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
 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
 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5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흠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26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25-3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며, 오늘 본문 28장은 두로 왕과 시돈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0절은 하나님께서 두로 왕의 죄악을 열거하시며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로 왕에 대한 심판(1-10)

(2)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나님께서서는 두로 왕에게 마음이 교만하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로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고,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로가 강해질수록 두로 왕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하나님

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습니다.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두로 왕에게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로 왕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만해진 이유를 3-5절이 증거합니다.

(3-5)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곳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두로 왕은 자신이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큰 지혜로 재물을 더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두로 왕이 정말 다니엘과 같이 지혜로웠다면 지혜와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야 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쌓아둔 재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혜와 재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나에게 지혜와 재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별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며 두로 왕이 교만함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행동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두로 왕이 교만함으로 인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10절

이 증거합니다.

(10)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두로 왕의 죽음이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치욕적인 죽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아서 진노와 저주 아래서 죽는 자들의 죽음 같이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 했던 두로 왕의 마지막 모습은 치욕적인 죽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로 왕의 교만한 모습은 사도행전 12장 20-23절에 등장하는 헤롯 왕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행 12:21-23)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왕은 백성에게 연설할 때 자신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하며 교만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즉시 헤롯 왕을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교만함으로 인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

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두로 왕과 헤롯 왕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루의 삶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도 하루를, 한 달을, 일 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반복되고 교만함에 빠져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도 두로 왕이나 헤롯 왕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로 왕에 대한 애가(11-19)

11-19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두로 왕에 대한 애가입니다. 두로 왕이 처음부터 교만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자는 아닙니다. 두로 왕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15절에서 증거합니다.

(15)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께서서는 두로 왕을 지혜가 충만하고 흠잡을 데가 없으며(12절),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고(13절),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완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두로 왕이 그만큼 흠이 없고 존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로 왕의 모습에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16-17)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멀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 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두로 왕은 나라가 강성해지고 해상무역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폭력적으로 변하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름다움을 믿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지혜를 더럽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두로 왕의 죄는 결국 그들의 성소까지 더럽히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18절). 두로 왕은 고난이 다가올 때가 아니라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두로 왕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된다고 생각되고,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도 두로 왕과 같이 교만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두로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19)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임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히라

두로 왕을 아는 많은 사람이 놀라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며 26장부터 시작된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막을 내립니다.

시돈이 받을 심판(20-23)

20-23절은 시돈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시돈에 대한 심판의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돈은 두로와 인접해 있던 성읍이기 때문에 두로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려는 일반적인 죄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시돈에게 전염병과 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23절).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시며 심판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24-26)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며 막을 내립니다.

(25-26)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아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괴롭게 하던 나라들이 없어지겠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지만,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다시금 회복시키며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습과 두로와 시돈의 모습은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데,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릴 때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평안이 있을 때가 있고, 징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화려하고 더 높은 세상의 넓은 문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길은 평안인 것 같지만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간다면 가는 길이 어렵고 장애물이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분은 아버지 한 분이지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아가며 교만함에 빠졌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지혜와 재물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고,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살피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두로 왕처럼 교만함에 빠져 살아갔던 적이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2.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과 지혜를 주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3. 두로 왕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나의 삶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을 향한 예언

에스겔 29:1-21

1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3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
 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
 다 하느도다 4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
 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5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
 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6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
 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7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
 였느니라 8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9 애굽 땅이 사막과 황
 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
 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10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므딤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
 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11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

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사십 년
 이 지날지라 12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
 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사십 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헤치리라 13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십 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
 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 14 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
 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
 약한 나라가 되되 15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
 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16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
 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7 스물일곱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
 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8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
 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
 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
 하였느니라 19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
 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
 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20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
 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
 에게 한 뿔이 돌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애굽을 향한 예언

에스겔 29-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애굽은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더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남유다가 멸망한 후, 16년 후에 애굽도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패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1)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으로 당시 에스겔의 나이가 35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1장에 보면, ‘서른째 해’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 에스겔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른째 해’라는 표현은 에스겔 나이가 30살이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오 년’ 된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이가 25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열째 해’라는 말은 포로로 잡혀 온 지 10년이 되었다는 뜻이기에 25살에 포로로 잡혀 온 에스겔은 현재 35살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잡혀 온 후 그 뒤를 이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기에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된 지 10년째 되는 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남유다를 11년 동안 통치하고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시 남유다가 멸망하기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

게 애굽의 심판을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하나님은 애굽이 당할 심판을 예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25장부터 이스라엘 주변국 심판의 예언 말씀이 나옵니다. 암몬과 모압, 세일과 에돔, 블레셋과 두로,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은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흔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아이가 잘못하면 꾸짖지 않습니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왜 훈계하겠습니까? 버릇없는 행동을 보면 부모가 누구길래 아이를 저리 버릇없게 키웠을까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맙니다. 내가 직접 그 아이를 훈계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한 아이가 내 아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잘못하면 바로 훈계합니다.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사랑과 관심을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주변국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훈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잘못했기에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애굽을 큰 악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활보하며 다니는 동물 가운데 악어만큼 강한 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어가 생각하기를 이 강은 자기가 만들었다고 호령하면서 이 강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떠벌리고 있지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교만하게 나일강을 활보하고 다니는 악어, 애굽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여호와가 갈고리로 애굽의 바로의 아가미를 꿰고,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바로의 비늘에 달라붙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비늘에 달라붙은 모든 물고기와 함께 바로를 강 한복판에서 끌어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와 그 백성들을 다 함께 사막에 던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바로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7)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때야 비로소 애굽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가 이 나일강의 주인인 줄 알게 됩니다. 애굽은 튼튼한 지팡이가 아니라 갈대처럼 속이 텅 빈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런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애굽을 의지한 이스라엘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은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하고 그로부터 16년 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도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3-14)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십 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흠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외 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이 말씀은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고 페르
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에 의해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 왔던 모든 백성을 본
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
다. 애굽은 고레스 왕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같은 주변국이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17-21절까지는 애굽이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 정복 당하는
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19) 스물일곱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여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스물일곱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좀 전에 ‘열

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으니, 그때로부터 17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29장 1-16절까지와 17-21절까지는 17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는 겁니다. 즉 17년 전에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이라 예언한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두로는 페니키아 연안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공격하자 두로는 배로 보물들을 실어서 도망갔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두로를 점령했으나 보물창고는 텅텅 비어있었습니다. 두로를 정복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이어서 애굽을 공격했고, 두로에서 받지 못한 보상을 애굽을 정복한 후에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돌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서 '그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한 뿔'은 바로 '구원의 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뿔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고의가 아니라 부지중에 살인을 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것처럼 제단 사면에 뿔이 있는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위해 구원의 뿔,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징계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바른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걸어가야 할 길을 걷지 않을 때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이 고난과 시련일 수도 있고,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바른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아침에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어 죄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외에 주변국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2. 나일강의 큰 악어로 묘사된 애굽은 당시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애굽을 속이 빈 갈대 지팡이로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는 갈대 지팡이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4. 두로를 정복하고도 보상받지 못한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한 후에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기에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를 통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5.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는 사인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에스겔 30:1-26

1 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3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와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4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 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5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6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므딤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7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8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9 그 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10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11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12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
 와의 말이니라 13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
 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14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
 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15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16 내가 애굽
 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
 누일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17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18
 내가 애굽의 멩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19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0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
 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1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22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23 애
 굽 사람을 못 나라 가운데로 흠으며 못 백성 가운데로 헤칠지라 24 내
 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 주려니와 내
 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25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 주고 바로의 팔
 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6 내가 애
 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흠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헤치리니 내가 여

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애굽과 그 동맹국에 대한 심판 예언(1-19)

지금까지의 에스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3장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소명에 대해 증거하고, 4-24장은 유다의 범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5-32장은 유다를 적대시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심판 예언 중에 25장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관한 것이고, 26-28장은 이스라엘의 북쪽 나라인 두로와 시돈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29-32장은 당시 전통적 강대국인 애굽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9절은 애굽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 본문이 앞의 내용에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19절은 29:17부터 이어진 내용입니다. 29:17에 ‘스물일곱째 해 첫째 달 초하루’라고 증거하는데, 그때는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26년이 지난 때이며,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15년이 지난 후인데 B.C. 571년입니다. 그 때까지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민들 사이에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

하고 있었습니다.

(2-3)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며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유다는 애굽을 그토록 신뢰하였습니다. 아니 신뢰의 대상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결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애굽 사람들도 목을 놓아 통곡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2-3절에서는 ‘날’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날’과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고, ‘구름의 날’이라고 합니다. 특히 ‘구름의 날’은 ‘고통의 날, 황폐의 날, 패망의 날’을 뜻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즉 ‘심판의 날’입니다. 유다가 애굽을 그토록 신뢰하고, 또한 애굽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각자의 ‘날’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끝낼 날이 있고, 배우자의 역할을 끝낼 날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역할의 마지막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자의 인생 마침표를 찍는 날도 있습니다. 그 날이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떤 태도로 사는지에 따라서 평가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도

왔던 나라도 함께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6-7)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므딤에서부터
수에너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나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동사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엎드러지다’, ‘낮아지다’, ‘황폐하다’, ‘사막이 되다’ 이 단어들은 철저하게 ‘무력한 인간’에 대한 묘사입니다. 애굽의 주변국들이 애굽을 도와 바벨론에 맞서려고 했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예외 없이 자기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녀를 지금보다 더 총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학교는 물론 학원에 보낼 수도 있고, 과외교사를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녀의 몫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지능지수를 높여줄 수 없고, 성실함, 집중력을 심어줄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불쑥불쑥 찾아오는 슬럼프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또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이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후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작은 돌멩이 하나도 치워줄 수 없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 사람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것은 동일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는 모든 인간이 속수무책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는 물론 죽음 이후의 삶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10-1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꿋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애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나일강'입니다. 길이가 6,600km가 넘는 나일강은 아마존강과 더불어 세계 최대의 강입니다. 수량(水量)도 굉장하여 그런 강물이 범람하여

만든 삼각주는 세계 최대이고,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모든 강을 마르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나일강뿐만 아니라 지류들까지 모두 마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강을 마르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물론 주변의 8개 지역을 심판하셨습니다. 8개 지역들은 애굽과 같은 강대국과 함께하면 자신의 나라와 도시들을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로부터 3년 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애굽(이집트)은 지금까지 더 이상 이전과 같이 힘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과 백성의 무너짐에 대한 예언(20-26)

20-26절은 애굽 왕과 애굽 백성의 무너짐에 대한 예언입니다.

(20)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 선지자는 B.C. 597년에 예루살렘이 두 번째 함락되었을 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11년이 되는 첫째 달 일곱째 날이 되었습니다. 20-26절은 1-19절보다 16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

전히 함락되기 3개월 전입니다. 그때 유다는 애굽의 힘을 빌려 국난을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견고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23)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못 나라 가운데로 흠으며 못 백성 가운데로 헤칠지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세밀한 그림처럼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팔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칼을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서 싸매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꺾이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성한 팔을 또 부러뜨리셔서 아예 팔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교통사고가 나서 몇 번의 수술 끝에 겨우 목발을 딛고 걸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또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단하는 바람에 스스로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된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애굽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뒷부분이 없어도 충분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도 불구하고 애굽 왕에 대한 심판을 따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말단 직원이 엉뚱한 일을 해서 회사가 피해를 입는 것보다 대표가 잠시 잘못 생각하는 바람에 입는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서 입는 피해보다 가장이 잘못된 길로 가서 입는 피해가 훨씬 큼니다. 가장의 탈선과 중독, 오관 등은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애굽은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했는가’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21-26절까지 여섯 절에 ‘내, 내가’라는 말이 11번이나 나옵니다. ‘내가’는 ‘하나님께서’입니다. 애굽이 무너짐은 단지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인 25절과 26절은 모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로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이 무너질 것에 대한 경고의 예언입니다. 이것은 애굽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애굽을 선택하기보다 그들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눈에 보였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비추어 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길에서 시온의

대로를 걸을 때는 물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더 높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이라는 물질, 권력, 인맥 등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2500년 전에 보여준 유다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으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애굽에 우리의 인생을 얹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에서도 애굽을 의지했고,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굽이 얼마나 허약한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니라고 고개를 가로저을 수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유다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시고, 흑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품어주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유한한 삶을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 속에 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애굽이 강대국이었을지라도 ‘여호와와 나’의 날이 가깝고, ‘구름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매 순간 ‘그 날’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가장 기대하는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 날을 믿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2.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셨음은 물론, 그 곁에 있던 나라와 도시들을 함께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 곁에 있습니까? 또 당신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당신은 그들과 함께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3.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 왕의 팔을 꺾으셨습니다. 당신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4. 눈에 보이는 애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목적 삼으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에스겔 31:1-18

1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누
구에게 비하라 3 볼지어다 앗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4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
진 곳을 둘러 흐르며 독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게까지 미치매 5 그 나
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
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6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
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
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7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8 하나님의 동산의 백
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
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
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9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
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
라 10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11 내
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 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12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짊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13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14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 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15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16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17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갈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18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갈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한때 백향목 같았던 애굽(1-9)

에스겔 29-32장은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29장에서 나일강의 악어와 같이 교만했던 애굽을 하나님은 갈고리로 건져

서 밖으로 던지겠다고 하셨습니다. 30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다양한 방법으로 애굽을 치시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그의 교만한 팔을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장에서 애굽이라는 큰 나무를 베어 넘어뜨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31장 전체의 서론입니다.

(2)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애굽이 지난 역사 속에서 떨쳤던 위엄을 인정하지만, 이제 그 위대했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어지는 앗수르 제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애굽 역시도 앗수르처럼 레바논 백향목과 같은 큰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레바논 백향목 같았던 앗수르의 과거 역사와 결말을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3) 불지어다 앗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앗수르와 애굽을 나무에 비유하면서 역사의 과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았던 옛 앗수르 제국은 과거 영광스러웠던 전성기가 있었지만, 이미 멸망의 길로 사라져갔으며 그 모습은 곧 애굽의 과거와 미래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20

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앗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이후에 애굽마저 정복하게 됩니다.

레바논은 헤브론산의 눈이 녹아서 흘러내린 물로 인해 푸른 숲을 이루었고 각종 새와 동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을 따라 25m나 높이 솟아 있던 백향목들은 레바논에게 아름다움과 부를 가져다주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백향목 나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4-6)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독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백향목은 모든 나무보다도 크고 아름다워서 주변 나라들이 그 나무를 의지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고, 이웃 나라들이 손을 내밀어 동맹을 맺고 의존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물이 많이 흐르는 강 주변에 있어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았습니다. 깊은 물이 그 나무를 자라게 도와주고, 독에 모인 물이 들판의 나무에까지 미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백향목처럼 강하고 튼튼한 나라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성장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주변 국가의 지원, 특별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 속에 한 나라가 생겨나서 부흥하기도 하고 성장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9절에서도 다시 언급됩니다.

(9)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백향목은 그 모양과 크기가 아름답고 웅장해서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나무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많은 도움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성취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희생과 지원 때문이라는 것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교만의 길, 넘어짐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도 같았던 앓수르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이유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소개합니다.

교만한 애굽의 멸망(10-18)

(10-11)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앗수르가 멸망한 것은 그의 교만한 마음이 구름에 닿을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것처럼 교만하고 악한 앗수르가 멸망당한 것처럼 이제 곧 애굽 역시 앗수르처럼 쓰러진 백향목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열국의 능한 자와 열국의 강포한 다른 민족으로 묘사된 바벨론에 의해서 그 백향목이 찍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부터는 아주 강력했던 백향목이 쓰러지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했던 백향목은 하나님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백향목이 스스로 자란 것 같지만, 끊임없는 물이 공급되었고 햇볕이 내리쬐었고 적당한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올곧게 잘 자랄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앗수르를 열국 중에서 다스리도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본분을 깨닫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지만 스스로 교만해져서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국은 죽음과 심판과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룬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찾아오는 교만을 제어하지 못하면 늘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

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룻을 구하러 갔습니다. 4개국 연합 군대를 물리치고 룻을 구하
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멜기세
덱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
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략과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그 말을 듣고 ‘아,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구나!’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리품의 십 분
의 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나가고 성공하고 업적을 이룰 때
교만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때로 어떤 일을 성취하거
나 성공하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
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만한 백향목 같은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의 개입하심이 시작됩니다. 16절에서는 애굽 때문에 주변의 나
무 곧 주변 국가들도 덩달아 쇠잔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스올에 떨어지게 하며 구덩이에 내리거는 자와 함께 멸
망의 길로 가게 하시는데,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

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했던 백향목 나무가 쓰러지고 멸망하게 되자 다른 나무들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17절에는 애굽의 그늘에서 유익을 얻던 나라들이 모두 동시에 피해를 보고 한꺼번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하거나 동조하거나 그편에 섰던 자들도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때 백향목과도 같았던 애굽이 넘어진다는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8)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에덴의 모든 나무보다도 위대했으며 레바논 백향목과도 같았던 애굽은 다른 많은 주변국과 마찬가지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며, 이방 국가들이 겪었던 최후와 같이 패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을 일구어 놓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돈과 명예를 쌓아 올리던 유명 연예인들이 갑자기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

는 대부분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누군가의 도움과 지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망각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여 악한 길로 가게 된다면 결국은 초라한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는 항상 교만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만은 곧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순간마다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삶이란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일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아울러 주변의 수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아들이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추구합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기를 즐겨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그러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일평생 겸손한 종으로 사셨고,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자신을 드림으로 인류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낮아짐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 그 길로 걸어갔던 역사의 많은 사람, 많은 나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미쳤음을 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 일평생 망각하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며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그 도우심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심이 복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에 또한 감사로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루하루 더욱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앓수르와 애굽은 레바논 백향목처럼 강하고 아름다웠지만 교만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때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 교만한 생각과 행동을 했던 때는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2.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위해 오늘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3.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며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4. 오늘도 눈에 보기에 아름답지만 결국 무너져가는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물을 맑게 하여

에스겔 32:1-32

1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
 되 2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3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
 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도다 4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임이여 온 땅
 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도다 5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임이여 6 네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도다 7 내
 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
 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임이여 8 하늘의 모든 밝은 빛
 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네 땅에 베풀리도다 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9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
 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임이여
 10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
 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
 로 떨리도다 1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오리로다 12 나는 네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임이여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
 리를 멸하리로다 13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 가에서 멸하리니 사
 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임이여 14 그
 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 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5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
 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임이여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6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름이여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
 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7 열두째 해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8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
 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19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
 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
 지어다 20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임이여 그는 칼
 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끝지어다 21 용사 가운데
 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함이여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22 거기에 앓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음이여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23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음이여 그들
 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24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
 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

다 25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
 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웠도다 26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27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
 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음이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28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임이여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29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
 이 있음이여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
 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30 거
 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음이여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
 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
 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31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임이여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
 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
 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1-16)

애굽에 대한 심판이 29장부터 시작해서 32장으로 끝이 납니다. 29장부터 시작된 애굽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섯 번 각각 다른 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29장에 두 번째 순서로 기록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제외하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던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장에는 두 번의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각이 연월일 표기로 되어있습니다. 연도의 기준은 이전 본문에서 여러 차례 들었던 바 있듯이 남 유다 왕 여호야킨이 바벨론에 의해 사로잡힌 해입니다. 32장 1절에서 16절은 애굽의 패망을 악어의 죽음으로 비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애굽이 죽어서 가는 곳, 죽음의 세계 안의 상황을 묘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하나님께서 2년 전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 왕을 큰 악어로 비유하시며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겔 29:3).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이 애굽의 강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말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굽 왕의 교만을 책망하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도 애굽 왕의 교만을 책망하시는데 애굽 왕이 스스로 ‘의인’이나 ‘용감하고 정의로운 통치자’로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여러 나라가 애굽 왕을 사자로 생각했다고 한 것은 애굽 왕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과시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애굽에는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스팅크스라는 석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그 길이가 약 70미터, 높이가 약 20미터가 될 정도로 거대하며, 그 형상은 머리가 사람이고 몸은 사자입니다. 애굽 왕이 만들었던 스팅크스 석상을 보더라도 애굽 왕은 자신을 ‘의인’이나 ‘용감하고 정의로운 통치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강물을 더럽히는 큰 악어에 지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강물을 더럽혔다는 것은 애굽이 이리저리 설치고 다니면서 주변 나라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악행을 일삼았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3-6)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니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임이여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니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임이여 네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애굽 왕을 상징하는 큰 악어를 그물로 잡을 것이고 물 밖으로 끌어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이 악어를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악어의 살점들을 골짜기에 두어, 모든 땅이 물 대듯 피로 물들 것이라고 합니다. 한때 애굽이 나일강물을 공급받아 어떤 나무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무성한 백향목과 같았지만, 심판의 날에는 나일강이 피로 변해 더 이상 백향목이 살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애굽의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뿔이 아닙니다. 7-8절에는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심판 역시 과거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임했던 9번째 재앙인 어둠을 연상하게 합니다. 빛이 없는 어둠의 세상은 죽음의 세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해와 달과 하늘에 빛나는 별 등 빛을 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차단된 어둠이 임하면 사람은 잠시 동안 생존할 수는 있을지언정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 것입니다. 왜 죽음의 세계를 어둠의 세계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둠은 곧 죽음이나 매한가지입니다.

(9-10)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임이여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애굽의 패망 소문이 여러 나라를 두렵게 하는 이유는 애굽
이 패망한 것처럼 자기 나라에도 화가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
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결코 패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나라
애굽이 비참하게 패망한다면 애굽보다 약한 나라들이 어찌 두려
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애굽과 같이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한 나라를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그 나
라와 협력하여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개인
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과 잘 어울려 그
것을 의지하여 잘살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사
람이 영원한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
니다. 내가 투자하고 협력한 기업이나 기관, 그리고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마음이 심란하고 번뇌로 인해 잠을 이
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1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오리로다

하나님께서서는 애굽을 심판할 도구로 바벨론을 정하셨습니다

다. 바벨론에 의해 애굽이 패망할 것인데 그 이유가 교만 때문이라고 합니다(12절). 애굽의 교만은 자신의 부강함이 자신으로부터 기인하였다는 생각입니다. 큰 악어가 자신의 영역인 물에서는 괴력을 발휘하겠지만 하나님의 그물에 잡혀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더 이상 물을 흐리지 못합니다(3, 13절). 악어가 물을 흐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악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악어가 사라지면 물이 탁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14절에 물이 맑아지고 강이 기름 같이 흐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애굽에 의해 억압받는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회복이라는 좋은 뜻이지만 애굽의 입장에서는 큰 악어로 비유된 애굽 왕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권력자가 죽고 애굽이 패망하게 되었으니 애굽 땅은 황폐하게 되어 사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애굽의 패망을 슬피 노래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16절).

함께 누울지어다(18-32)

(17) 열두째 해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애굽 심판에 대하여 마지막 여섯 번째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시각이 같은 해, 열두째 해에 있었습니다. ‘어느 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에는 정관사가 붙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록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다섯 번째 심판의 말씀 이후 불과 14일 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이때까지 여러 나라의 심판의 예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후 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18)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하나님께서 2절 말씀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 슬퍼하라고 합니다.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이란 애굽과 운명을 같이해 온 나라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애굽처럼 심판을 받을 정도의 악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 빛의 세계로 갈 수도 있고 어둠의 세계로도 갈 수 있습니다. 누구와 친밀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것, 최고라고 하는 것,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애굽이 빠졌던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 빠지면 죽음의 길로 갑니다.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32장 후반부 말씀은 죽음의 세계를 알려주고 있는데 반복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덩이’, ‘무덤’, ‘스올’입니다. 이는 어둠의 세계, 곧 죽은 자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면 그 아름

다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애굽처럼 구덩이에 내려간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높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둘째는 ‘할레받지 아니한 자’입니다. 할레받지 아니한 자는 단순히 남성 생식기의 포피를 베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할레는 구원받은 자의 표징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며 할레받지 못한 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덩이’, ‘무덤’, ‘스올’,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아름다움을 가졌던 애굽이 갈 곳은 할레받지 아니한 자 옆입니다.

셋째는 ‘죽임을 당한 자’입니다. 죽임을 당한 자는 단순히 죽은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칼에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 칼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칼입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둠의 세계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22절에 앗수르, 24절에 엘람, 26절에 메섹과 두발, 29절에 에돔, 30절에 시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 믿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죽음의 세계에 있었다는 것은 모든 불의한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보면, 불의한 나라와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해칠 정도까지 그들을 증오할 필

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불의한 나라와 불의한 사람들을 반면 교사 삼아 우리나라가 불의한 나라가 되지 않으며 나 자신이 불의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눅다’입니다. 애굽이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서 함께 누울 자들이 누구입니까? 할례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애굽처럼 악한 자들이며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두렵게 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두렵게 했지만 죽음의 세계에서는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들끼리 같이 누워있게 됩니다. 32절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군사 대국과 경제 대국 통치자들의 권력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처럼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약소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억압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들과 사람들이 애굽이 갔던 ‘구덩이’, ‘무덤’, ‘스올’, ‘할례받지 아니한 자’의 세계, ‘죽임을 당한 자’의 세계에 눕게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영원한 강대국이 없으며 일평생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없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리셨던 애굽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듣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애굽과 같이 부와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친하게 지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애굽과 같은 나라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 구덩이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애굽 왕이 자신을 사자(lion)로 생각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 ‘피가 개천에 채워지고(6절), ‘어둠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8절),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임이여(13절)’가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3. 애굽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같이 던져진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미 죽음의 세계에 있었던 나라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4. 죽음의 세계를 묘사하는 네 종류의 단어들과 표현을 통해서 느낀 바를 간략히 적어봅시다.
5. 구덩이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에스겔 33:1-33

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3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4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5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6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7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이다 8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9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10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11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12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13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14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15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16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17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리라 18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19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20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21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22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

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와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23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4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25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보냐 26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보냐 하고 27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28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리라 29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30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 보자 하고 31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32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33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겔의 소명(1-9)

유다를 적대시했던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25장에서 시작하여 32장으로 마침표를 찍고, 33-39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증거하고, 40-48장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환상, 즉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에 대한 환상에 대해 증거합니다.

1-9절은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3차에 걸친 대대적인 공격으로 무너졌습니다. B.C. 605년이 1차 공격을 받았던 때이었는데, 이때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의 젊은이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B.C. 597년이 2차 공격을 받은 때이었는데, 이때 유다 왕 여호야긴을 비롯하여 에스겔 선지자와 수많은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하여 유다가 완전히 무너졌고, 두 눈이 뽑힌 시드기야 왕과 함께 많은 사람이 끌려가서 유다에는 유력한 사람들이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제국의 2차 공격 때인 B.C. 597년에 끌려왔습니다. 그때로부터 12년 10월 5일이라고 하는 것은 B.C. 585년의 일입니다. 즉 유다가 완전히 무너진 지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모두)은 깊은 실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

벨론 제국이 아무리 신흥 강대국이어도 전통 강대국인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무너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애굽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종이호랑이와도 같았습니다.

(2-4)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파수꾼’은 본래 성벽 위에 배치된 군인으로 적군의 침입이나 움직임에 감지하여 알리는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막중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적의 동태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을 때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6·25전쟁 때 인천상륙 작전을 지휘했던 맥아더 장군은 ‘전투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서 실패하는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여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졸거나 잠을 자다가 적군의 동태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파악했더라도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것은 전적으로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경계로 적군의 동태를 충분히 알렸음에도 백성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백성들의 책임이었습니다.

(7-9)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경계인데, 그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백성의 목숨이 달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과 ‘그들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고를 받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의 길은 곧 죽음의 길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까지 여덟 절에서 ‘경고하다’가 8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은 경고를 하는 것과 듣는 것이 몹시도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과 같이 영적인 파수꾼도 경고를 하지 않아서 백성이 듣지 못하여 죽음의 길을 가게 되면 그것은 영적인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경고를 듣고도 그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백성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의무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와 성경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는 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 앞에서는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개인의 책임(10-20)

10-20절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가 되어있을지라도, 각자가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0)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온 사람들은 짙은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반문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라며 자책했습니다. 이런 절망적 사고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17)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20)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이러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해 놓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와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않은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정직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들이 지금의 삶에서 돌이켜

떠나기를 요청하십니다. ‘돌이키다’와 ‘떠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모두 ‘회개하다’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심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했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18-19)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돌이켜’가 모두 ‘회개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보다 어디서 어디로 돌이켰느냐’입니다. 또한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키는 것의 연속입니다. 그 돌이킴이 의로움에서 불의함으로,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에서 욕망으로 돌이킴이라면 영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반대라면 영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죄악 된 삶에서 현재의 의로운 삶으로의 돌이킴이라면 생명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현재의 의로운 삶에서 과거의 죄악 된 삶으로 돌이킴이라면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경고 그리고 교훈(21-33)

21-33절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에 남은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 그리고 포로민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1년이 훨씬 지나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물론 포로로 잡혀 온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들은 끌려왔을지라도,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게 되었을 때, 난공불락 지역으로 수백 년 동안 차지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곳, 시온 산성이었는데 그곳을 다윗 왕이 전쟁에 승리하여 차지하고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만큼 난공불락의 도시라고 여겨졌고, 게다가 거기에는 성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은 함락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25)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보나

B.C. 605년과 B.C. 597년 두 번에 걸친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끌려간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고, 전체를 대신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롭기에 하나님께서 끌려가지 않게 해 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아 있던 사람들은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혼자일 때도 이 땅을 주셨는데(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 바로 성전이 세워진 곳), 자신들은 숫자도 많은데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가 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고기를 피째 먹고, 우상숭배에 눈멀었고,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라며 반문하셨습니다.

(29)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루살렘은 영원히 자신들의 것이며,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바르지 못한 생각에

하나님께서서는 정문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최초의 대중가요가 ‘황성옛터’인데, 폐허가 된 고려 수도를 보고 탄식하는 노래입니다. 2절 앞부분 가사가 이러합니다.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초만 푸르러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황성옛터’가 아니라 ‘예루살렘 옛터’를 수도 없이 불러야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악하였다면,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달랐을까요? ‘아니다’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32-33)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겔 선지자는 피맺힌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디너쇼에서 노래하는 사람 정도로, 자신들은 거기에 참석해서 밥 먹는 사람들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국교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설교자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스갯소리와 성공담을 늘어놓고, 교인들은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참 복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미 1-3장에 나왔습니다. 특히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좋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부르심과 응답을 통해서 자신을 바르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주신 소명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반복적인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도록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므로 복되고 형통한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삶의 자리에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끊임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다시 돌아 오기를 기다려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은 의롭기에 포로가 되지 않았고, 당연하게 예루살렘을 차지할 자격이 된다고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오판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있던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피맺힌 호소를 예능프로그램처럼 생각했던 비아냥거림과 오만함을 즐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교양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가수의 디너쇼 참석자로 생각하는 교만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에스겔 선지자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반복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도 반복해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길 속에 있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삶보다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하며, 그것이 상과 별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과거의 신앙생활과 현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더 나아지고, 성숙해진 부분은 무엇입니까?
2.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오판을 했고, 바벨론 포로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락(예능)으로 여겼습니다. 당신의 삶과 신앙에서 돌아서야 할 오판과 말씀에 대한 바르지 못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3. 에스겔 선지자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반복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처음 부르심을 받은 것은 언제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까?
4.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으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선한 목자와 삯꾼

에스겔 34:1-31

1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4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5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6 내 양 떼가 모든 산과 높은 멧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 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도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7 그러므로 목자들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8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 떼가 노략 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내 양 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9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0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 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11 주 여호

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13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애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14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 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15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6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1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18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19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20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괴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21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빨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22 그러므로 내가 내 양 때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 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23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4 나 여호와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5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

안히 거하며 수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26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27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멩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28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 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29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30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31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약한 목자, 샅꾼(1-10)

(막 6:3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로마의 정치적 폭력 아래서 신음하는 식민지 이스라엘 무리를 예수께서 보십니다. 또 바리새인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군림(君臨), 밥 먹듯이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종교적 언어일 뿐 실은 자기 자리 보존에 혈안이 되어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에만 정신없는 그 거짓된 샅꾼 지도자들 아래서 한숨짓는 이스라엘 무리를 예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향해 말씀하

됩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 같은 너희가 참으로 불쌍하다.’

오늘 에스겔 34장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나라를 잃은 암울함과 침울함, 그리고 짙은 패배 의식에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목자라고 세워놓은 지도자들이 한결 같이 모두 샅꾼들입니다. 그 샅꾼들 아래서 흐느껴 우는 백성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엾은 백성을 외면치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 같은 너희가 참으로 불쌍하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내가 직접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마!’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3)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목자’는 문자적으로는 ‘왕’을 뜻합니다. 그런데 실은 목자가 아닙니다. 이 목자들은 샅꾼입니다. 무늬만 목자인 이들은 왕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 기득권층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한결같았습니다. 자기만 먹습니다. 자기 배만 채웁니다. 자기 사리사욕만 채웁니다. 백성의 필요를 채워 주지 않습니다. 백성인 그 양 떼를 먹여야 마땅할진대 양을 먹이기는커녕 오히려 양을 잡아먹습니다. ‘더 살진 양이 어디에 있나’ 그렇게

잡아먹을 궁리나 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목자, 삯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일갈하십니다. ‘네 이놈들, 양 떼를 먹여야 하는 것이 마땅할진대 네 놈들은 네 배만 채우고 있구나. 저 목자 없는 백성의 불쌍한 모습을 좀 보라. 눈이 있으면 좀 보라.’

(요 10:11-15)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악한 목자, 삯꾼들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대조적입니다. 삯꾼들은 자기를 위하여 양을 잡아먹고,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하여 죽습니다.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양들에게 먹입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마 26:26b).’

(4)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악한 목자, 삯꾼들은 연약하여 주저앉은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손잡아 일으켜 줄 생각도 없습니다. 병들어 신음하며

마음이 상한 사람을 보살피지 않습니다. 함께 아파할 생각도 없습니다. 길을 잃고 낙담하며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줄 몰라 애통하는 사람을 찾아보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질 생각도 없습니다. 목자가 없어 유리하고 방황하며 들짐승의 밥이 되어가는 그 잃은 양을 찾아볼 생각도 없습니다(5-6절). 자기 배 채우기, 자기 자리 지키기, 양 잡아먹기, 그렇게 자기를 위해 군림(君臨)할 뿐입니다. 이는 아흔아홉 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과와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눅 15:4).

(10)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 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내 양 떼를 그 악한 목자, 삯꾼들의 손에서 되찾아가리라! 이제 더는 저들에게 내 양 떼를 맡기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내가 직접 내 양 떼를 먹이리라.’

선한 목자, 하나님(11-22)

그 악한 목자, 삯꾼들과 대조적으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11-14)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애와 사벳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 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8개의 동사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11절)’, ‘그것들을 건져낼지
라(12절)’,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13절)’, ‘여러 백성 가운
데에서 모아(13절)’,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13절)’, ‘좋은 꼴을
먹이고(14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14절)’, ‘누워 있으
며(누이며, 14-15절)’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견인하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흩어지고 잃어버린 양들을 친히 찾으시며, 그 크신
능력으로 직접 건져내십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
원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을 모으고,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경륜
과 섭리 안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좋은 꼴을 먹이며 푸
른 초장에 두시며, 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
시기 때문입니다.

(15)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메시아 목자와 화평의 언약(23-31)

(23)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기서 ‘한 목자’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할 목자로 보내시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제2의 다윗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요 10:11)’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언약을 맺으십니다(25절). 그 화평의 언약은 평안(25절), 복된 소낙비(26절), 열매(27절)의 풍성한 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화평의 언약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30)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양이며, 나는 너희의 목자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것을 알리

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오늘 본문은 나라를 잃은 암울함에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 없는 양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서 버림 받고 상처받은, 그래서 이제는 길을 잃고 헤매며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만, 바벨론의 포로요 식민지가 되고 만 가엾은 백성입니다. 그 낙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이제 우리는 절단이 났구나’하고 여기고 있던 그때, 연약하고 상처 난 양 떼들인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애끓는 심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긍휼의 외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얘야, 울지 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양이다. 내가 너희의 목자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다시 내 양, 너희를 먹이리라!’

우리의 몸은 점점 허름해지고 마음먹은 대로 잘되지 않는 현실과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신음과 한숨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법 많이 만납니다. 가시덤불과 영정귀의 인생이 맞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낙담의 이유가 되고, 불안과 의심, 그리고 두려움으로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선 선한 목자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 10:27). ‘얘야, 괜찮다. 내가 너의 목자다. 너는 내 양이다. 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끝이 없겠니, 가자, 푸른 초장으로. 내 손잡고 함께 가자.’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우리가 걸어내야 할 그 걸음을 끝까지 견디며 걸어내십시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실수와 실패, 그릇된 선택과 실망, 좌절과 한숨, 자책과 막막함, 어찌할 줄 모르는 방황과 무력의 삶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자리임을 인정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애야, 내가 너의 목자다! 너는 내 양이다. 가자, 내 손잡고 함께 가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요 10:27).’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스라엘 목자들의 모습을 정리해 보십시오(1-10절). 그 이기적인 목자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 선한 목자인신 주님의 성품을 정리해 보십시오(11-22절). 그 주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그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바라보며 묵상하십시오.
3.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목자인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세일 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에스겔 35:1-15

1 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 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3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 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4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5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6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7 내가 세일 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8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네 여러 멧부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엮드리지게 하고 9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0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11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12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삼키게 되었

다 하여 욱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13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14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15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 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고대 이스라엘과 내륙으로 맞닿아 있던 나라들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북동쪽, 갈릴리 호수 위쪽에는 ‘아람’이 있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바로 아람 족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역시 아람 사람이었던 외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아람의 아래, 요단강 동쪽에는 ‘암몬’이 있었고, 암몬 아래에는 ‘모압’이 있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 조카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모압의 남쪽과 경계를 이루며, 사해의 아래쪽에는 ‘에돔’이 있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내륙 쪽으로 국경을 이루고 있던 아람, 암몬, 모압, 에돔은 이스라엘과 혈육 관계입니다. 즉 남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회만 생기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 국가 중에서도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일 산을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3)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 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시겠다는 세일 산은 이스라엘 사해 아래에 있는 산으로 에돔 족속이 거주했기에, 세일 산은 에돔 족속을 의미합니다.

(15b) 세일 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25장에서 암몬, 모압,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34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다가 35장에서 갑자기 에돔에 대한 심판을 재차 말씀하십니다. 34장에서 바로 36장으로 건너뛰어도 문맥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34장과 36장 사이에 에돔의 심판에 대한 35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오바다서는 전체가 에돔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에돔의 심판에 대해 왜 이처럼 강조하고 있을까요?

에돔의 선조인 에서는 삼촌 라반에게 도피했던 야곱이 다

시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고향인 가나안과 처가인 세일 땅 에돔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온 후에는 가나안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에서와 야곱의 짐승들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생기자, 에서는 재산과 가족을 이끌고 세일로 이주했습니다(창 36:6-7).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동안 에서의 후손은 세일에서 에돔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신명기 2장 4-6절에 의하면 에서의 후손이 세일 산을 중심으로 에돔 왕국을 세운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에돔 왕국의 땅은 한 치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절대로 에돔과 다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 2:4-6)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고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처럼 에돔을 아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돔을 대적하여 황폐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 매우 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씀을 15절로 구성된 본문에서 6절과 11절, 두 번이나 거론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에돔에 대한 노하심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3절),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7절),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9절),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14, 15절)’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 이렇게까지 대노하신 이유는 무엇 일까요?

(5a)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는 말씀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갈등은 장자권에서 기인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장자권을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생각한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에서의 눈을 피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압복강가의 사건을 통해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화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에서가 동생 야곱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후손들이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마치 원수처럼 여겼을 뿐 아니라,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바벨론에 동조했습니다.

(5b)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에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동조한 이유를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십니다.

(10a)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12a)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이 두 구절을 통해 에서와 그 후손들은 장자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태중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에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야곱이 잔피를 부려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갔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야곱을 향한 에서의 분노와 질투는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결국 에돔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오랜 세월 동안 집요하게 괴롭혀 왔습니다. 에돔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에돔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일언지하에 거절했으며, 심지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도움을 주기는커녕 즐거워하며 재물을 약탈했고, 남유다 백성들을 잡아서 타국에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욥 1:11-14).

(욘 1:11-14, 새번역)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 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훔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 패였다. 네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 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 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 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 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 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 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시 137:7, 새번역)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 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혈어 버려라, 혈어 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혈어 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는 에서에게 합당한 기업을 주셨고, 야곱에게는 야곱에게 합당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을 자신의 기업으로 여기며, 형제 국가인 남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멸망에 동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34장을 통해 그리고 36장 이후를 통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단의 기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

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 했던 에돔을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십니다.

(13)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대적한 에돔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남북이 분단되어 서로 총칼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뛰어넘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자국의 이익에 부합시키려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저마다의 야욕을 드러내며 우리나라를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대국들의 패권 싸움의 한복판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짓밟고 약탈했던 고대 근동 국가들, 영원할 것 같았던 강대국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거나, 과거의 위용을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위세가 꺾였습니다. 반면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여겼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History(역사)는 사람의 story가 아니라, 하나님의 story입니다. 즉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전개되어 왔으며, 전개되고 있고, 전개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임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외하며 의탁할 대상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에돔과 북한이 오버랩됨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개인의, 한 집단의 야욕을 위해 한반도는 물론 한반도 주변국들과 멀리 미국까지도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 야욕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본문의 에돔과 같은 파국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이 위기에 처하게 될 때, 본문의 에돔과 같이 행동한다면 우리 역시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힘의 논리를 앞세워 약소국을 핍박하는 강대국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6)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으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하나님께서 셈하실 때 후회한들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또한 에돔이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 공동체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 형제간의 분란은 결국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주장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부모의 뜻보다는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공동체인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데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구성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만을 고집한다면 그 교회는 성도들 간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며 세속적인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않는 에돔과 같은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떤 문을 택하겠느냐?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거짓의 넓은 문, 파멸의 넓은 문으로 들어가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진리의 좁은 문, 영생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느냐?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에서라는 한 개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야욕을 추구한 결과, 그의 삶은 동생 이스라엘을 향한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점철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 그 후손들 역시 미움과 질투의 지옥 속에서 날뛰다가 결국 하나님의 노하심에 멸망하게 이르렀습니다. 주님,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본문의 에돔과 같이 날뛰는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동족인 북한이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 역시 에돔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뜻을 내려놓고,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진리의 좁은 문을 들어가는 올바른 부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100주년기념교회에서 주님의 보혈 아래 형제, 자매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위치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삶에 대한 평가가 나에 의해, 그리고 내 후손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같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25장에 이어 에돔에 대한 심판이 다시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하나님께서 노하신 에돔의 죄는 무엇인가요?
3.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나의 삶으로 해석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4.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나를 상상하십니까?

새 영을 새 마음을 주되

에스겔 36:1-38

1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이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2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네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고다 하였느니라 3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 거리와 백성의 비방 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4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이 주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지어다 산들과 멧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 있는 이방인의 노략 거리와 조롱 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5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 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6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멧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7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8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이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

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9 내가 돌이켜 너희
 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10 내가 또 사람을 너
 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
 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11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
 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2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13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
 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14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
 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라 15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
 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
 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16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
 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
 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18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
 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19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흠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20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
 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21 그러나 이
 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

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
 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4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
 국 땅에 들어가서 25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
 를 지켜 행할지라 28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
 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9 내가 너희를 모든 더
 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30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31
 그 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밋게 보리라 32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
 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33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
 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
 게 할 것인즉 34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
 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35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
 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36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

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 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 38 제사 드릴 양 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산의 회복(1-15)

어제 본문인 35장은 세일 산(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인 에서가 이삭의 장자인데도 그 장자권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을 향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제국을 도와서 유다 백성들을 살육하는 데 동참했고, 이스라엘 땅을 탐내었으며,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 1-15절도 ‘산_산의 회복’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산’은 ‘이스라엘 국토’를 나타내는 제유법적 표현입니다.

(2-3)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너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고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원수들인 이방인들이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라며 기뻐한다고 합니다. ‘높은 곳’은 고지대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비롯한 ‘가나안 땅-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자신들에게 영원히 주셨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그 어떤 대적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틀렸다’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유다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 될지를 4개의 구문으로 표현합니다.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다’입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굉장히 심각한 표현입니다. 한 가지만 해도 처참한 상황인데, 엮힌 데 덮친 격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과 참상은 몹시도 고통스럽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빼앗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 있는 이방인과 애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땅을 빼앗은 이방인들에게 ‘내 맹렬한 질투_나의 질투의 불’을 발하신다고 하십니다. ‘질투’는 상대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감정입니다. 상대에 대한 애정이 깊을수록 질투도 커집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 배우자에게 어떤 해를 가한다면,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배우자에게 가한 해는 곧 나에게 해를 가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빼앗고 노략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땅을 빼앗아 노략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놀란 사울이 되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기는커녕 이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뵈는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7)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이 구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내가’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주어와 대명사일 때는 동사에 기본적으로 주어와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주어를 함께 적지 않는데, 강조할 때는 씁니다. 여기에 주어와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노략한 이방인들이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까지 다섯 절은 모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5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아서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른 구절과 동일하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2절의 내용이 7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방인 원수들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10)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땅이 비록 이방인들에게 유린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돌이켜 주셔서 다시 그 땅을 갈고 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도 많아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이 번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

시는 복을 받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는 언어유희도 있습니다. 35장에서 ‘세일산’으로 표현되는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는 ‘사람을 너희 위에 많이 하시겠다’라고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에돔’과 ‘아담’은 자음은 똑같고, 모음만 다릅니다. 에돔도 ‘붉다’라는 단어에서 왔고, 아담도 ‘붉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에돔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아담의 땅, 이스라엘은 황폐함에서 경작지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약속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5)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구절에 ‘다시’가 두 번이 있는데, 처음에 있는 ‘또’도 ‘다시’와 같은 단어이기에, ‘다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는 수치를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비방을 받지 않게 하시며’, ‘다시는 동족이 동족을 넘어뜨리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를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완전한 회복 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것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16-38)

1-15절이 이스라엘 땅의 회복에 관한 약속이라면, 16-38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19-20)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흠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까지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우상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아서 그 땅을 오염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보고서 ‘여호와 의 땅에서 떠난 자_쫓겨난 자’라고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시기도 하시지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만 ‘주여, 주여’라고 공기를 진동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써야(온 힘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조롱받는 삶에 마침표를 찍는 출발점이자 종착점입니다.

(23)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바르지 못한 삶은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인격적인 부모는 자녀가 형편없는 삶을 살 때 자녀를 부모가 생각하는 만큼의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진력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시 23:3)’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26-28)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_돌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_고기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겉’이 아니라 ‘속’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겉의 변화는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속의 변화는 흉내를 낼 수 없고, 겉의 변화로는 하나님을 직면할 수가 없고 속의 변화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수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31-32) 그 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일은 자기 자신의 실상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자신의 지난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인정하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허물 많은 자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7-38)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 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 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번성하는 모습이 마치 절기에 제물로 드릴 양 떼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월절에 성전에서 제물로 드린 양이 20만 마리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황폐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자손들이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등진 삶, 이방적 가치관에 물든 삶으로 인해서 그 땅을 오염시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지난 삶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었는지를 깨달았다면

그들은 거기에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노래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
져 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해주
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
제나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목적 삼고 나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물질과 내 욕망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때가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지 않으셨던들, 우리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노래 부르며 슬피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은총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말거리와 비방 거리가 된 이스라엘 땅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은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켜 주신 것 중에서 마음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새롭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3. 오늘 본문에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11, 23, 38절)’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 일은 무엇입니까?
4.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에스겔 37:1-28

1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3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와 말씀할 줄을 들을지어다 5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7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6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18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19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20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21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 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22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23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24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

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25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
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26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변성하게 하며 내 성
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 내 처소가 그들 가
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
라 28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
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33-39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유다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별주심(징계)에 있는 게
아니라 회복에 있으며, 분열이 아니라 통일에 있음을 알 수 있
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며, 유다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졌지만 하나로 통일될
것이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1-14)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이 지나서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신흥 강대국이라 해도 전
통 강대국인 애굽이 남유다를 지켜줄 것으로 굳게 믿었지만, 그
믿음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믿음

의 대상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붙잡아 보지만,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달을 때는 세상과 사람에게 철저히 실망할 때입니다. 외세에 멸망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3)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의 신이 에스겔을 골짜기 한가운데로 이끌어 가셔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치 이 대화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같습니다.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을 받은 에스겔은 ‘살 수 있습니다’ 또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이 직접 대답하지 않고 그 답을 여호와께서 내리도록 여지를 남기는 답변을 합니다. 베드로로 마찬가지로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사랑합니다’ 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자신이 직접

대답하지 않고 그 답을 주님께서 내리시도록 여지를 남기는 답변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답변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직접 내리시도록 여지를 둔 것은 에스겔도, 베드로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른 뼈를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도 있고 확신도 있지만 연약한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감히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또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과장할 필요가 없고, 나를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4-6)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준 이유는 이 마른 뼈들을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멸망 당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마른

뼈와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11절에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체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버린 뼈를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른 뼈를 보여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이상 소망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러 가기 직전에 묻고 얻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으면 뭐라 말하면 좋습니까?’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분,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지금은 바벨론에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알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른 뼈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기 때문입니다.

(7-10)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서로 붙어서 연결되더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마른 뼈에서 이제는 겉으로
볼 때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사방에서부
터 와서 그 사람을 살아나게 했는데, 그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마른 뼈
가 살아났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늬만 살아
난 게 아니라 뿔속 깊이 살아난 것입니다.

(마 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벨론 제국에 의해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딱 이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였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마음으로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처럼 멸망 당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삶과 신앙이 다르다면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15-28)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국민은 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외세로부터 압력과 공격이 심할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 만에 돌아온 것처럼 이 나라도 속히 그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17)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막대기 두 개를 취해서 막대기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다른 막대기에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말하고,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은 분단되어 있으나 앞으로 통일이 되어 하나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14절까지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 당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독립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5-28절까지는 분단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앗수르 제국에 멸망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23)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아픔도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해야 합니다. 외세의 압력과 공격에만 우리의 눈을 둘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우리 민족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악의 원인을 내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로 서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준행하며 살아갈 때, 이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민족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나의 죄로 인함임을 먼저 자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결단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날, 바보처럼 살았다고 노래 부르며 슬피 울지 않고 동행하여 주신 은총에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마른 뼈 환상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2. 마른 뼈를 살아있는 군대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까?
3. 분단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죄로 인한 것이듯이, 오늘 나와 단절된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죄로 인함임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4. 바보처럼 살아온 인생만큼 허송세월 한 시간이 아쉽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에스겔 38:1-23

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3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4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5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6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 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7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8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9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광풍 같이 이르고 구름 같이 땅을 덮으리라 10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11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12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

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13 스바와 드단과 다
 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14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
 느냐 15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
 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16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
 엘을 치러 오리라 곡아 끝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
 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
 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1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
 씌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
 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 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18 그 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9 내
 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 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
 엘 땅에 일어나서 20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
 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
 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21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22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23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갈고리로(1-9)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33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37장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과 막대기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들음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과 회복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0장에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38장과 39장은 마곡의 왕과 그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마곡의 왕과 그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라는 예언의 위치가 부자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들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 당하거나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마곡의 왕과 그 연합국들이 심판을 받게 38장과 39장은 하나님의 권능과 선민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곡과 마곡에 관한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7-10절에 나오는데 마곡의 왕과 그 연합국들의 패배는 에스겔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의 미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종말의 상황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영원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 가운데 회복되며, 마곡의 왕처럼 거대한 세력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로 인해 승리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1-2)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하나님께서 인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곡 땅에 있는 세 곳의 지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곡의 왕 이름을 ‘곡’이라고 합니다. 마곡 지역을 다스리는 ‘곡’이 누구인지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역사적으로 ‘곡’과 발음이 비슷한 사람들이 거론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역사적 인물 또는 집단으로 알렉산더 대왕, 고트족, 회교도, 몽고족, 스탈린, 히틀러 등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곡’이 누구인지에 대해 특정한 인물이나 집단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점은 ‘곡’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적대하는 모든 세력의 총칭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성전 중심, 오늘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의 총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곡’을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곡’은 의로운 왕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대적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메섹과 두발은 에스겔 32장에서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등장했던 무리들이며,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한 나라들이었습니다.

(4-6)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아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이용해서 마치 곡과 그의 연합국의 무리들을 짐승을 다루듯이 끌어내리시겠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들의 군대는 기마병, 완전한 갑옷, 크고 작은 방패, 투구까지 갖추었습니다. 이는 공격력과 방어력이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곡의 연합국으로 언급된 바사는 동쪽에, 구스와 붓은 남쪽에, 고멜은 서쪽에, 도갈마는 북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곡의 연합국들은 각각 동서남북에 위치한 나라들로서 세계 각국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한 이스라

엘이 본국으로 귀환하여 나라를 이룰 것인데, 크고 강하지 않은 나라,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마곡의 왕 ‘곡’이 동서남북에 위치한 연합국을 동원한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공격력과 방어력을 완벽히 갖춘 군대들을 동원한다는 점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곡과 그의 연합국 각각에게도 ‘스스로 예비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히 침략을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려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9절을 보면 곡과 그 연합국이 광풍같이, 구름같이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그리고 엄청난 수효로 이스라엘의 땅을 덮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성을 가져 매우 강하기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수효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를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강한 세력도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며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 시대와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대이든 또는 종말의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마곡의 왕 곡과 그의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전쟁을 할 시기가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후 본국으로 돌아와 평화의 시기를 보낼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인 본문에 ‘여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많은’, ‘큰’, ‘충분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후’를 흠정역(KJV)을 포함한 여러 영어 성경에서는 ‘많은 날 후’로 번역했으며, 새번역은 ‘네가 공격 명령을 받기까지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로 의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이어지는 단어가 ‘말년에’인데 이 단어는 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곡과 그의 연합국의 공격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귀환과 그 이후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곡과 그의 연합국의 공격이라고 단정할만한 역사적 사건은 없습니다. 또한 곡과 마곡에 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한 적대세력이기에 역사적으로 이렇다 할 만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어느 날 곡과 마곡 연합국의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에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날에(10-23)

(10)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10-13절까지는 7-9절의 곡에 대한 심판의 예언에 이은 두 번째 예언입니다. 10절의 ‘그날에’는 8절의 ‘여러 날 후에, 말년에’와 같은 날입니다. 곡과 그의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러 오는 날입니다. 그날에 이들의 탐욕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들은 11절에서 볼 수 있듯이 평화롭게 무방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12절처럼 물건을 노략하고, 짐승과 재물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이때 13절을 보면,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 상인과 그 부자들로부터 한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비난의 소리냐면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분쟁이나 전쟁은 탐욕에서 기인한 것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평화와 공존을 내세우지만 결국에는 이권을 쟁기기 위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거나 소유한 것이 거의 없는데 나에게 접근하여 크고 작은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거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불의함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14)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14-16절까지는 3번째 예언입니다. 14절에도 날이 나오니
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이며 곡이 군대를
끌어오는 어느 한 날입니다. 16절에도 날이 나옵니다. ‘끝 날’입
니다. 곡이 아무리 강한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칠지라도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곡과 그의 연합국 군대를 갈고리에 걸어
끌어내리신 이유는 택한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
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지만 더 중
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16b)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께서 단지 하나님 자신을 알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됩니다. 하
나님께서서는 불의를 보고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세상의 신
들과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기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곡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내 노여움이(17-23)

(17-18)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 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 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곡의 무리들을 이끌어내실 것을 몇 차례 예언하셨습니다. 곡의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만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곡의 무리들에 대한 노여움이 맹렬하여 큰 지진이 발생하여(19절) 육해공의 생물들이 두려워 떨 것이고, 산과 절벽과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20절). 산과 절벽의 무너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무너짐이며, 성벽의 무너짐은 사람들이 만든 인공물의 무너짐입니다. 20절을 보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떨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과 자연이 떨고 변형이 되겠지만 심판의 주 대상은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공물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보호벽, 인공물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노로 대지진을 일으키시면 수년 내지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21)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곡과 그의 무리들에게 내분을 일으켜 칼로 서로 싸우며 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2절을 보면, 전염병과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목적을 38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3)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며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도 모르고 존재의 목적도 모르며, 지금 밟고 서 있는 땅과 눈으로 보는 하늘과 모든 자연과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심을 알려고 하지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의 나라와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알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곡과 그 무리들의 세력을 이 세계에 불러오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셈하시는 날, 사람들 각자 인생을 매듭짓는 날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하루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불의를 행하는 세력들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심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의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문을 향해 하루하루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불의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알리는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마곡 땅에 있는 왕, ‘곡’을 갈고리로 걸어 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곡의 연합국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3. 곡과 그의 무리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상황을 고려하여, 오늘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력에 둘러싸여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4.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5.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그 날이 이 날이라

에스겔 39:1-29

1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2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3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4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5 내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6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밧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7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8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9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10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 그 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12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13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4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 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 보되 15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꽃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16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1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18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숫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19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20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21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22 그 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23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었러지게 하였으되 24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25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26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27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28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29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침략자 곡의 멸망(1-20)

에스겔 3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은 오늘 본문 39장에서 마침표를 찍고, 40-48장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환상, 즉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에 관해 증거합니다. 에스겔 39장은 38장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38장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던 곡의 심판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39장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1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2장에서 더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일러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 1-20절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곡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일러 줍니다. ‘마곡의 왕 곡’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의견이 분분하여 누구를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의 총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곡과 마곡’이 등장합니다.

(1-2)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곡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며, 많은 사람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된 일을 모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중심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과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므로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지켜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5)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새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곡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모든 것을 점령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연합군은 모두 이스라엘 산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신들은 새와 들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죽은 후에 매장되지 못하고 땅에 버려질 경우 내세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신으로 버려진 사람은 가장 큰 형벌을 당한 것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곡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큰소리를 치고, 장담해도 그냥 힘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곡의 연합군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9-10)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위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녹탈하던 자의 것을

느탈하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각 도시와 마을에서 곡의 연합군들의 무기인 크고 작은 방패, 활과 화살, 몽둥이와 창을 주워서 땀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7년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골집에 가면 가마솥이 걸려 있는 아궁이 옆에 장작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땀감으로 쌓여 있는 것이 장작이 아니라 각종 무기들입니다. 크고 작은 방패가 천장까지 쌓여 있고, 몽둥이와 방망이가 ‘우물 정(井)’으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시 전쟁에서 이기면 적들의 무기는 고스란히 아군의 무기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태웠다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년을 태울 수 있다는 것은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승리가 완벽한 승리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곡과 마곡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됩니다.

(11-12) 그 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곡의 연합군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매장하는데 7개

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7개월은 연합군의 무기를 떨감으로 태우는 데 7년이 걸린 것과 더불어 완전수입니다. 죽임을 당한 수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장한 골짜기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매장함으로 그곳의 지명이 ‘하몬곡의 골짜기’로 바뀌어 버리고 말 정도였습니다. ‘하몬곡’은 ‘곡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도시의 이름도 ‘하모나_무리’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장소의 지명이 바뀌는 것은 어떤 사건이 그만큼 크고, 강렬했다는 것입니다.

(1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7개월을 매장해도 다 매장하지 못한 시신들은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마지막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21-29)

21-29절은 세상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강조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2-23) 그 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엮드러지게 하였으니

이 두 구절에서 ‘알겠고’와 ‘알지라’가 서로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2절 ‘알다’의 주어는 ‘유다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즉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포로민이라는 것보다도,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23절 ‘알다’의 주어는 ‘여러 민족’입니다. 즉 과거 유다 백성들의 패배와 수치 당함이 그들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바르지 못한 삶으로 인해 포로가 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어도 그렇게 했겠다’의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단절을 의미합니다. 마치 친구가 반복적으로 내게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행동하면, 다시는 네 얼굴 안 본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이방인들이 보기에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였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27-29)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조국으로 돌려보내심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고 하십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고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셨는가 했더니, 자기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시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이방인들의 입에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포로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무능하시고 우리에게 관심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니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은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셨는데, 앞으로는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앞으로 너 안 본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앞으로 너 안 보는 일이 절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8-39장은 마곡의 왕, 곡에 대한 심판입니다. 곡이 여러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곡의 군대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엄청난 것이었으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다시 등장시켰겠습니까? 그래서 곡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곡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주님을 목적 삼지 않고 살도록 만드는 것들의 총체와도 같습니다. 그 곡이 무너지고, 끝날 때가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불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하나님께서 곡을 무너뜨리시는 날, 그것을 끝내시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하신다고 하십니다.

열왕기하 15장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7명이나

나옵니다. 성경 한 장에 가장 많은 왕이 등장합니다.

52년간 다스린 아사라(웃시아), 6달간 다스린 스키라, 1달간 다스린 살룸, 10년간 다스린 므나헴, 2년간 다스린 브가히야, 20년간 다스린 베가, 16년간 다스린 요담입니다. 그들 중에는 52년을 다스린 사람도 있지만, 겨우 한 달과 여섯 달을 다스리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자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왕위에서 내려올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나이가 다 차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자식과 신하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곡과 같은 일에서 벗어나는 날’일 수도 있고, 부모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날이나 배우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일터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날일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매일 매일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삶을 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 주님을 목적 삼고 사는 것이 최상의 길입니다. 그때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마곡의 왕 곡이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을 때는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엄청나 보이는 곡에게도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의 날이 있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날이 이 날이라’의 날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에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은 비록 마음을 짓누르고 암울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소망의 빛 한줄기가 비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마곡의 왕 곡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이 이 날이라’와 같은 날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있었던 ‘그 날이 이 날이라’와 같은 날은 언제였습니까? 그 날로 인해서 얻은 교훈은 무엇이였습니까?
2. 곡의 군대는 패하고, 그 무기들(방패들과 활과 화살, 몽둥이와 창 등)은 7년간의 떨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고백 되는 일은 무엇이였습니까?
3. 유다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옴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거룩하심)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난 일은 무엇이였습니까?
4.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목적 삼으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저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에스겔 40:1-49

1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 열넷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2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3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늦 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서 있더니 4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5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6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7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방 사이 벽이 다섯 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 문이 있으며 8 그가 또 안 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9 안 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여덟 척이요 그 문 벽은 두 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10 그 동문간

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지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11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열 척이요 길이가 열세 척이며 12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여섯 척이요 저쪽도 여섯 척이며 13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 가에서 저 방 지붕 가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14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스무 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15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안 문 현관 앞까지 쉰 척이며 16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17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18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19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백 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20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21 길이는 쉰 척이요 너비는 스물다섯 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22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23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 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 척이더라 24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25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쉰 척이요 너비는 스물다섯 척이며 26 또 그리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

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27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 척이더라 28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29 길이가 쉰 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30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스물다섯 척이요 너비는 다섯 척이며 31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32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33 길이가 쉰 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34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35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36 길이가 쉰 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37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38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39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40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41 문 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여덟 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42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43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44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
 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
 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45 그가 내게 이르되 남
 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46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
 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47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너비는 백 척이라 네모 반듯하
 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48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
 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다섯 척이요 저쪽도 다
 섯 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세 척이요 문 저쪽도 세 척이며 49 그 현관
 의 너비는 스무 척이요 길이는 열한 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 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
 쪽에 있더라

에스겔 40-4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환상을 담고 있습
 니다. ‘심판과 회복’이라는 패러다임은 모든 선지서가 가지고 있
 지만, 특별히 에스겔은 다른 선지서에 비해 이스라엘의 신앙적
 인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서부터 제시되는 에스겔 성전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에 있어 더욱더 확
 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환상의 시작과 바깥 뜰과 그 문들(1-27)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지막 날짜 관용구인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 열넷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이라는 표현을 통해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이 시작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와 공의롭고 날카로운 칼이 심판과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 구원과 회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40장을 시작하면서 기대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40-42장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될 것임을 새 성전 환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 중 오늘 본문인 40장에서는 ‘늦 같이 빛나는 사람’ 즉, 한 천상적인 존재가 에스겔을 성전의 경내와 그 주위로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 바깥뜰의 문과 방들, 안뜰의 문과 방들, 성전 문 현관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는 천상적인 존재는 그를 이스라엘의 땅 중에서 매우 높은 산위로 데리고 가 성읍의 형상 같은 것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4)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 앞서 ‘보고’, ‘들으며’, ‘생각할지어다’, ‘전할지어다’라는 네 가지 동사를 통해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벨

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터 보여줄 환상을 통해 지금의 징계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소망을 주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은 철저하고 섬세했습니다.

(3)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늦 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삼줄은 큰 공간을, 장대는 작은 공간을 측정하는 기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상적인 존재는 기존 건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완성된 성전 공간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것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 성전의 건축자 하나님을 성전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아무런 도구 없이도 한 치의 오차가 없는 성읍을 지으실 수 있는 능력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눈대중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줄과 막대기로 정확하게 계측해서 지은 완벽한 성읍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측량하는 막대기 길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 길이는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에 이른다고 합니다. 팔꿈치에서 손가

락까지의 길이가 ‘1규빗’입니다. 보통 1규빗은 45.6cm를 의미하는데 에스겔이 사용하는 자는 1규빗에 한 손바닥의 너비를 더한 것임으로 52cm 정도로 계산합니다. 개역개정은 이 단위를 규빗과 구분하여 ‘척’이라 하고 새번역은 ‘자’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여섯 척에 이르는 이 측량하는 장대는 3.1m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구로 측정하는 이 도구에서도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질 에스겔 성전에 대해 기대해보게 됩니다.

에스겔과 함께한 천상적인 존재는 이 도구들을 가지고 먼저 담의 두께와 높이를 측량합니다. 그 두께와 높이는 한 장대(3.1m)였습니다. 담 아래로부터 동쪽을 향한 문 앞까지는 일곱 개의 계단이 있었고, 이 계단을 올라가면 문이 나오는데 그 문의 통로는 한 장대(3.1m)의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안쪽으로는 한 장대(3.1m) 크기의 문지기들의 방이 좌우 양쪽으로 각각 3개씩 있었으며, 각 방 사이에는 5척(2.6m) 크기의 벽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문지기들의 방 끝 안쪽 문의 현관, 즉 성전으로 향하는 문의 현관 크기도 역시, 한 장대(3.1m)였습니다. 그리고 현관 크기가 8척(4.2m)이었습니다. 그 현관 앞에는 결기둥이 있는데 2척(1m) 두께의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10척(5.2m)이었고, 통로의 길이는 13척(6.8m)가량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 방 앞에는 높이와 폭이 1척(52cm) 되는 난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동문의 문간의 크기, 곧 왼쪽 문지기 방의 지붕 끝과 오른쪽 문지기 방의 지붕 끝 폭을 측량하면 25척(13m)이 되었습

니다. 성전 뜰을 향하는 현관 폭은 20척(10.4m)가량 되었습니다. 또한 그 문의 길이는 50척(26m)가량 되었습니다. 현관과 모든 문지기 방의 벽과 그 방들 사이에 있는 벽에는 창이 있었고 현관 양쪽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동문을 자세하게 측량하면서 봤던 에스겔은 동문을 통과하면 펼쳐지는 바깥뜰로 인도를 받습니다. 바깥뜰의 삼면은 모두 박석, 곧 넓적한 돌로 포장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 포장은 동문의 폭과 같은 폭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 땅들 위에는 30개에 이르는 방이 있었고 양쪽 그 중앙에는 동문과 같은 형태의 문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 문을 북쪽을 향한 문과 남쪽을 향한 문이라 지칭합니다. 바깥뜰 문을 마주하고 안뜰 문이 있었는데, 그 사이의 거리는 100척(52m)이었습니다.

바깥뜰을 살펴본 에스겔은 이제 다시 북쪽을 향한 문과 남쪽을 향한 문의 순서로 인도를 받았으며, 그 크기와 구조에 있어 동문과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성전 안뜰의 문과 방들(28-49)

바깥뜰의 남쪽을 향한 문에 대한 환상을 마치고 이제 안뜰의 남쪽 문을 보게 됩니다. 안뜰 문의 크기도 바깥 문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길이가 50척(26m)이고, 너비가 25척(13m)입니다. 내부의 구조 또한 바깥문과 동일합니다. 같은 형태의 두 문, 바깥문과 안뜰 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그 사이는 100척(52m)

의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이 있는 위치상 높이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바깥뜰과 안뜰의 경계로 존재하는 8개의 계단을 올라야 안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뜰 남쪽 문을 본 에스겔은 이제 같은 형태의 동쪽 문과 북쪽 문을 살펴보게 되며, 이후 안뜰 북쪽 문의 부속 건물들과 물건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문 곁에는 문이 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의 현관, 즉 안쪽에는 양쪽에 각각 상이 2개씩 있었습니다. 이 상은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기 위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같은 형태의 상이 문 밖 양쪽에도 2개씩 있었습니다. 이 또한 희생제물을 잡기 위한 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총 8개의 상이 이쪽과 저쪽에 4개씩, 안쪽과 바깥쪽에 4개씩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8개의 상은 다듬은 돌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길이와 너비는 모두 1척 반(78cm)이었고, 높이는 1척(52cm)이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돌 상 위에는 희생제물을 잡는 도구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문의 현관 안에는 손바닥 넓이만 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혀 있었으며, 상 위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뜰문 옆에는 번제물을 씻는 방 외에 노래하는 자의 방이 두 개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방은 남쪽을 향하여 있고, 남쪽에 있는 방은 북쪽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방들은 문이 안뜰을 바라보는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대해서 천상

적인 존재가 말합니다. ‘남쪽을 향한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안뜰을 측량했습니다. 그 뜰은 길이와 너비가 모두 100척(52m)인 정사각형의 형태였으며, 성전의 앞뜰 안에는 제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성전 문의 현관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벽을 재어보니 너비는 5척(2.6m)이고 그 폭은 3척(1.6m)이었으며, 총 현관의 너비는 20척(10.4m)이고 폭은 11척(5.7m)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뜰에서 성전 문으로 가는 데는 또 한 번 계단을 올라야 했고, 계단 위에는 문 벽 곁에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40장은 새롭게 지어질 에스겔 성전의 외관을 중심으로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성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지만, 에스겔 성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에스겔 성전을 미래에 완성될 성전의 모습으로 여깁니다.

또한 에스겔 성전에는 다른 성전들과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문만 있는 다른 성전들과 달리 에스겔 성전은 성전으로 가는 문이 동문, 남문, 북문 3개가 있습니다. 이는 많은 학자로 하여금 이제 에스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만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임을 예표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

니다. 이는 성전의 개방성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개방된 성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전 3:16-17)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바로 성전이며 우리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지어지지 않았던 이 에스겔 성전이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설계되고 완공되었던 것과 같이 완전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져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 된 우리의 본분을 잊은 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의 삶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우리의 삶을 제멋대로 지어가는 것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고백하는 삶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 된 본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함께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며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어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비록 환상 가운데였지만, 에스겔 성전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완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완공된 이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며,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말하라 말씀하신 은혜를 되뇌어봅니다.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삶이 이 에스겔 성전이 되어, 우리를 통해 만방이 아버지를 깨닫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께로 열방이 나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답지 못한 우리의 삶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성전 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낼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상상하며 천천히 본문을 다시 묵상해 봅시다.
2. 바깥뜰 문 밖에서 안뜰 문 앞까지 걸어오르는 계단과 100척의 거리에 희생제물을 끌고 오는 사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봅시다.
3. 에스겔 성전 앞에 선 천상적인 존재의 손에 들려 있는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봅시다.
4. 에스겔 성전 된 나의 삶을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다 그리하더라

에스겔 41:1-26

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2 그 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3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4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5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 척이며 6 골방은 삼 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삼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7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돌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8 내가 보니 성전 삼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밑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여섯 척인데 9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다섯 척이요 그 외에 빈 터가 남았으며 10 성전 골방 삼면에 너비가 스무 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11 그 골방 문은 다 빈 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러 있는 빈

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12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일흔 척이요 길이는 아흔 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다섯 척이더라 13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 척이요 14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 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15 그가 뒤뜰 너머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백 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16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 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17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18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19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20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21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22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하더라 23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24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요 25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26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에스겔은 40장에서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늦 같이 빛난 사람’의 인도를 따라

성전 바깥 담부터 시작하여 성전의 바깥뜰과 안뜰, 각 뜰로 드나드는 문과 부속 시설에 대해 살폈습니다. 이어서 41장에서 에스겔은 성전 안뜰을 지나 성전 본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성소에 이르러(1-4)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라 성소까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성전에 들어온 에스겔은 성전의 두 기둥을 바라봅니다. 이 기둥을 본 에스겔은 과거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에 기록된 두 기둥의 의미는 각각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란 의미를 가집니다. ‘야긴’은 성전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신다는 의미를 상징하며, ‘보아스’는 성전과 다윗 왕조의 견고함과 안정성을 상징하고, 다윗 왕조에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란 진리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과거 다윗 왕조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였고 성전도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성전의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는 전리품으로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인가? 이 의심은 하나님께서 진정 세우고 견고하게 붙드시는 나라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정한 나라는 혈통적인 다윗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보존하게 하였고, 결국 다시 돌아오게 하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결국은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기쁨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붙드시는 가정은 세상의 풍파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의지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영원히 세워지고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18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요란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려는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가 모든 삶을 통제하려는 교만하고 요란한 ‘열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그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열심’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4)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을 측량하는 ‘눗과 같이 빛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했다고 합니다. 즉 ‘그가 내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인데, 여기서 내전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원래 40장에서부터 천사가 계속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 외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측량했습니다. 그러나 3절부터는 에스겔을 성소에 머물게 하고, 천사 혼자서 측량하며 그 내용을 에스겔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었고, 대제사장일지라도 레위기 1:1-17에 기록된 대로 대속죄일만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은 제사장 신분이지만 지성소에 출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성소는 성전에서 가장 거룩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아무리 희생 제사를 드려도 주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절대 가지 못합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에 ‘사이’가 있었고, 하나님과 인간에 ‘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오염됨으로 철저히 구분되었습니다. 이를 구별해주는 것이 ‘성전의 휘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

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휘장은 두께가 얇은 천이 아닙니다. 예전에 성전 원형을 그대로 재현한 곳에서 이 휘장을 보았습니다. 만져보니 휘장의 두께가 약 20cm이었습니다. 어른 손바닥 너비만큼의 두께가 찢어졌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 막혀있던 두꺼운 휘장을 찢어 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격적이며 신비롭게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며, 그 몸의 찢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감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5-6)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 척이며 골방은 삼 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삼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골방들의 연합됨(5-15)

이어서 성전 벽 삼면의 골방들과 건물 후면의 독립 건물에 대한 측량을 보도합니다. 여기서 총 90개의 크기가 다른 골방들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의

미합니다. 골방의 크기가 달랐다는 것은 성도의 능력과 위치, 은사 등에 다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방들이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교회의 중심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골방들은 성전뿐만 아니라 다른 골방들과도 상, 하, 좌, 우로 연결되어 결국 하나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연합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어찌 보면 하나가 되는 것보다 하나 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나 되는 비결은 우리에게 화평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18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서 14:19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방해하는 것은 내 이기심과 욕심입니다. 이기심과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 내 자아가 크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3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히브리어 ‘아나브’는 ‘대답하다’는 뜻인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대답하는 사람은 오직 종입니다. 주인만 질문할 수 있고, 대답은 종에게만 주어진 몫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온유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는 겸허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을 낮추는 겸허함의 습관을 가질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 됨을 깨는 자가 아니라, 하나 됨을 이루어 나가

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13)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 척이요

13-15절은 성전 본체와 뒤뜰에 있는 부속 건물의 총 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에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눈과 같이 빛난 사람은 성전의 모든 부분을 측량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는 측량하는 사람, 즉 천사를 하나님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을 친히 측량하여 어떠한지를 에스겔에게 보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서아시아 일곱 교회를 측량하셔서 칭찬하시기도 하고, 때론 책망하시거나 징벌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측량하며 그들의 어떠한을 보십니다. 측량의 목적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교회를 측량하신다는 것은 그 지체인 성도들의 삶도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내 삶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재건해야 합니다.

변성하게 만드는 장식(16-26)

16-21절까지는 성전의 내부 장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신기한 것은 다윗 성전에는 없던 종려나무가 새 성전에서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먼저 본문에 나오는 새 성전은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지어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적 계시입니다. 그리하여 새 성전에 그룹들 외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다는 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에스겔 7:6에서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라고 합니다. 이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최후 승리를 거두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경험할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23)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22-26절은 성전에 있는 두 개의 문, 내전 문과 외전 문에 관한 설명입니다. 내전 문은 지성소 문이며, 외전 문은 성소 문입니다. 이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소 문과 지성소 문을 통과해야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양들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허황되고 죄된 것을 보고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

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종려나무’입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성전 벽과 성문에 유독 종려나무가 많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탔는데, 그 종려상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타마르’라고 하며 ‘꿀처럼 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119:103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꿀보다 더 단 것이라고 여기며, 말씀의 달콤함을 얘기합니다. 성전의 곳곳에 종려나무를 새긴 것은 불사조 피닉스라는 별칭을 가진 종려나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승리와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써 인생에 넘치는 달콤한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쓴맛 혹은 매운맛이 입안에 가득 찰 때 이를 잠재우는 것은 그보다 더 강한 단맛을 머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에서 근심과 슬픔의 쓴맛과 매운맛을 덮는 것은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새겨주셨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 놓으신 종려나무를 생각해봅시다. 그 종려나무 열매보다 더 달콤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번성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말씀의 열매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

을 가까이하고 말씀에 취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바른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경작자, 평화의 연결고리로 쓰임 받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에스겔에게 성전환상을 보이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의미들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의미들을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종려나무를 저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꿀보다 더한 말씀이 저희 인생에 뿌리를 내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생길이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엮어진 골방들처럼 말씀 안에서 언제나 어디서든, 하나 됨을 위해 노력하고 쓰임 받게 하셔서, 저희가 서 있는 곳에서 평화의 경작자, 평화의 연결고리의 바른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지 않고 견고하지 않게 하신다고 원망을 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2.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건이, 나에게서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3. 나는 공동체에서 하나 됨을 돕는 자입니까? 아니면 깨는 자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하나 됨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4. 내 안에 새겨주신 종려나무를 되새기며, 말씀의 달콤함을 누릴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가까이하는

에스겔 42:1-20

1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2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백 척이요 너비는 십 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3 그 방 삼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스무 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4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열 척이요 길이는 백 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5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좁아짐이라 6 그 방은 삼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7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십 척이니 8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십 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백 척이며 9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10 남쪽 골방 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11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12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13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의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

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14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15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답을 측량하는데 16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17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18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19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오백 척이라 20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답 안 마당의 길이가 오백 척이며 너비가 오백 척이라 그 답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성전-제사장의 방(1-14)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인 40-48장은 새 성전과 새 제사(예배), 새 땅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0-43장은 새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40장은 성전 외부에 있는 문들의 양식에 대해서 증거하고, 41장은 지성소를 비롯한 성전의 본 건물의 양식에 대해서 증거하며, 오늘 본문 42장은 성전의 부속 건물인, 제사장들의 방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15절은 새 성전 본체 건물의 남쪽과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의 양식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은 때가 40:1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 열넷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라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하여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이 25년 전이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도 14년 전의 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처음에는 '혹 빨리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1년이 지나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도 14년이 지난 때입니다. 사람들이 희망도 없이, 오늘은 어제와 같고, 내일은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체념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1-2)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백 척이요 너비는 십 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밖, 북쪽 뜰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성전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은 2개로 되어 있었는데 길이가 100척(52m)이고, 너비가 50척(26m)입니다. 그 크

기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전의 크기에 맞먹습니다. 이런 거대한 방이 북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쪽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예배)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는 성전(예배당) 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밖도 함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배당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러지려면 음향을 담당하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냉난방을 공급하는 기계실이 있어야 하며, 여러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봉사자를 위한 공간, 설교자를 위한 공간 등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 공간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실에서 예배다운 예배가 드러지게 됩니다. 만약 냉난방을 공급하는 공간이 없다면 무더운 여름이나 혹한의 겨울에 예배드리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또 음향을 공급하는 공간이 없다면 설교자가 소리를 아무리 힘껏 질러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또 이내 설교자의 목이 쉬어서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방은 3층 구조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1층과 2층은 같은 크기의 높이이고, 3층은 크기가 작아 전체 외형은 계단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층 옥상은 3층의 베란다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10-12) 남쪽 골방 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이 남쪽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성전을 중앙에 두고, 제사장들의 방이 날개처럼 북쪽과 남쪽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양쪽에 있는 건물이 성전 본체와 맞먹는 규모로 펼쳐져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다시 정리하면 이리합니다. 동쪽 문을 통해서 뜰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 뒤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 옆으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의 방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제사를 강조합니다. 제단을 중앙에 두고, 그 제단의 주변을 디근 자 형태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 역할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성전만큼이나 큰 공간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13)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을 보여주시고서, 그 방에 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방들의 특징은 ‘거룩한 방_구별된 방’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머무는 장소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무엇

으로 지었는지 재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별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지성물_가장 거룩한 제물, 가장 구별된 제물’을 먹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구별된 장소, 구별된 음식, 구별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있는 곳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당에서 구별되어야 함은 물론, 가정에서, 일터에서 등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4)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제사장들 방의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말하는데 13절에서는 구별된 음식을 먹는 곳이고, 14절에서는 구별된 옷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즉 제사장이 제사(예배)를 집전하고서, 그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바깥뜰로 나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가려면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배의 옷과 일상의 옷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는 구별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비싼 옷을 입는다든지, 새 옷을 입어야 한다

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입을 옷을 고르면서 마음이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가거나, 취업을 위해 면접하러 갈 때, 또 존경하는 분을 만나러 갈 때 아무 옷이나 입고 가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입을 옷을 따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예배 설교를 할 때는 그때에만 입는 양복이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는 다른 곳을 다니지 않습니다. 그 양복과 주중에 입는 양복이 동일한 제품이지만, 그 양복은 주일 설교할 때만 입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날을 구별하고, 제 마음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사면 담(15-20)

15-20절은 성전의 사면 담의 규모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5)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20)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오백 척이며 너비가 오백 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동쪽 문으로 나가서 동서남북 사방 담 길이를 재었더니 각각, 500척(260m)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크기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보다 50배보다도 더 큼니다. 그런데 이 담의 중요성은 그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이 아주 또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 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구별됨’입니다. 만약 구별됨이 없다면 거기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건물에 학생과 교사가 있으면 학교가 되고, 의사와 간호사와 환자가 있으면 병원이 되고, 죄수와 교도관이 있으면 교도소가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구별된 곳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가꾸어 간다는 것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물론 구별된다는 것이 담 안에서만 살아야 하고, 밖에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담 안에 있는 것은 가치가 있고, 밖에 있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담 안에서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담 밖에서도 올바른 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담 안에서의 새로워짐을 통해서 담 밖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0장부터 이어져 오는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미 14년 전에 무너진 상태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해도 유대 백성들은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습

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의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주셨지만, 이런 성전이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지어진 일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어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생활을 할 때는 불박이 성전이 아니라 이동 성전인 ‘성막’을 짓고서 움직일 때마다 접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성막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은 새 성전과 새 제사, 새 땅(성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48:35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리라’입니다. ‘여호와삼마’의 뜻이 ‘여호와(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또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고 있어 고달플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거기에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비록 고달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삼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40장부터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40:1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또 41:1은 이

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리고 오늘 본문 42:1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43장도, 44장도 동일하게 시작되고, 그 이후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다녔다는 의미기도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고, 자신이 본래 신분인 제사장의 길을 신실하게 걸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밭강가에서 다른 포로들처럼 강제노역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제사장인 것을 잊지 않았고, 제사장으로서 걸어야 할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본 환상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되어 3500년이 지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고, 더 넓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어디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 또 그곳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걷게 되면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여호와삼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구별된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중요한 것은 크고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구별됨
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 성전으로 가꾸어지
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
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본받으려고 하지 아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선지자가 다른 유다 백성들과 동일하게 포로생활을 했을지
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가 어
떠하든지 비록 거기에 고난과 고통, 고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초
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가 '여호와삼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계시는 하나
님을 목도하는 현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성전 중 제사장들의 방은 ‘거룩한 방’이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들이 ‘지성물’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있습니까?
2. 제사장들은 제사(예배)를 집행할 때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서 바깥뜰로 나가지 않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서 나갔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구별되게 지키는 것 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3.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성전 담의 길이는 사방으로 500척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중요성은 길거나 큼에 있지 않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담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4. 자신의 삶을 구별되게 하고 가야 할 길을 걸으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 43:1-27

1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2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 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3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 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4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6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7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8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9 이제는 그들이 그 율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10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11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

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12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13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밀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돌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밀받침이요 14 이 땅에 닿은 밀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15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16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 척이요 너비도 열두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17 그 아래층의 길이는 열네 척이요 너비는 열네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밀받침에 돌린 턱의 너비는 반 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1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19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제물을 삼되 20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21 그 속죄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르지며 22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23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드리되 24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25 칠 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숫
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갓출 것이며 26 이같이 칠 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27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팔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
이니라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와의 영광(1-5)

에스겔 40-43장까지는 새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40장은 성
전 외부에 있는 문들의 장식에 대해서, 41장은 지성소를 비롯한
성전 본 건물의 양식에 대해서, 42장은 성전 부속 건물인 제사
장들의 방과 사면의 담에 대해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 성
전에 임한 여호와와의 영광과 번제단에 대한 증거입니다.

(1)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후에’로 시작되는 문장은 앞서 기록된 성전 사면의 담
을 측량한 후(42:15-20)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
은 느낌을 전합니다. 원어 성경에는 이전의 내용에 곧바로 이어
지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NIV, NASB 성경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NIV) Then the man brought me to the gate facing east,

(NASB) Then he led me to the gate, the gate facing toward the east;

두 역본 모두 문장의 시작을 ‘그때’를 의미하는 ‘Then’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천사는 에스겔에게 성전 외곽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의 사면을 측량하게 한 뒤, 곧장 그를 성전 동쪽으로 난 문으로 데려갔습니다.

(2-3)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 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 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동쪽에서부터 오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시청각적으로 묘사합니다. 웅장하게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수식어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의 역동적인 느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를 빼는 것이 적절하다고 까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수식어를 더하여 기록한 것은 당시 본문을 대하는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유다) 백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선민으로서의 의무는 저버린 채, 권리만을 주장하던 그들은

이방의 포로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스라엘’을 더하여 기록한 것은 소망 없이 연명하던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소망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많은 아버지가 존재하지만, 내게 더욱 특별한 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만이 자녀 된 우리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잊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이신지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에스겔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두 가지 환상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외적인 모양이나 형상이 유사했음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멸망을 선포하셨던 과거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과거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신 사실과 더불어 언약을 따라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 자비로우심을 동시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4-5)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동쪽에서부터 시작된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의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갔고, 곧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

니다. 온전한 새 성전이 완성되는 감격적인 순간은 이처럼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에는 방위를 나타내는 방향 중 유독 동쪽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구약에서 동쪽은 출입문이 있는 곳이며 진행하는 방향의 중심축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에덴의 출입구도 동쪽이었고(창 3:24), 성막의 출입문도 동쪽이었고(레 1:16),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이동하는 순서도 동쪽에 위치한 지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민 10:5).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물고 있던 쪽도 동문이었습니다(겔 10:18, 19). 성전 멸망에 관한 보도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떠났음을 밝히고 있습니다(겔 11:23). 이처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동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은 아마도 동쪽에서 시작되는 일출 그 이상의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새 성전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전에서 선포된 말씀(6-12)

(7)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새 성전에 영원히 임재하시겠다는 선언과 함께 과거의 성전을 떠나게 만들었던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왕까지도 음행을 일삼았던 부분입니다. 이는 육체적 음행을 넘어 우상을 좇는 신앙적 변질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왕들의 시체에 의해 더러워진 부분입니다. 죽은 왕들의 시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체’로 번역된 원어 ‘פגוע(페게르)’는 ‘비석’으로도 번역됩니다. 따라서 성전에 딸린 어느 지역에 죽은 왕들을 신성시하기 위해 비문이나 기념비를 세운 악행을 의미하는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어 보다 직접적인 교훈이 이어집니다.

(9)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새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과거에 범한 두 가지 죄를 다시 짓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음을 교훈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명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백성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10-11)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에스겔을 통해 백성들에게 성전의 물리적 치수뿐만 아니라 역사적 치수, 즉 과거의 죄악을 깨닫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반성을 보이면 다시금 성전의 제도와 구조, 그 모든 규례와 법도, 율례를 설명하고 지키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번제단과 그 제단의 봉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번제단의 규격과 봉헌(13-27)

(13)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돌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1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전 장(40-42장)에서 성전의 치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나, 성전 안의 기물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새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의 강조를 위해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 다섯 절에 걸쳐 설명합니다. 이어 그 제단의 봉헌의 규례를 아홉 절에 걸쳐 설명합니다. 이처럼 번제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우리는 성전의 본질적 기능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은 백성들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회개와 용서가 필요했는데, 이를 위한 공간이 번제단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동쪽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성전에 임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성전으로 완성됨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더 바라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증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칭하셨고(요 2:19-21), 바울은 성도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교훈했습니다(고전 6:19). 과연 오늘 우리 몸은, 우리 삶은 온전한 성전으로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고 싶습니다.

혹 과거의 육체적, 영적 음란과 세상의 헛것들을 탐하고 있

다면, 이런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구원을 향해 가는 우리의 열망보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깊이 되새겨 봅시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가야 할 길, 평화의 경작자요 연결고리로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를 소망합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일상 속에서 음행이나 교만에 기인한 생각과 행동을 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가야 할 길을 걸으며 평화의 경작자요, 평화의 연결고리로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동쪽과 동문을 통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을 때 에스겔의 심정을 생각해 봅시다.
2. 우리 삶에 반복되는 죄의 유형과 패턴에 대해 분석해 봅시다.
3. 반복되는 죄를 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결단해 봅시다.
4.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의 감격을 묘사해 봅시다.

이 문은 닫고

에스겔 44:1-31

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들지니라 3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4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5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6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7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8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9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11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12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아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14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에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15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아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17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 옷을 입을 것이니 18 가는 베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19 그들이 바깥뜰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20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21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22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 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은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 들 것이며 23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24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
 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25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
 제나 시집 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26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칠 일을 더 지낼 것이요 27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28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
 라 29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
 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30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내리도
 록 하게 하라 31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 등
 에 관한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성전의
 평면도를 그려볼 수 있는 40-43장에서 성소와 지성소, 출입문,
 골방과 제사장의 방, 뜰 등의 위치와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44-46장까지는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새 예배의 규례가
 나옵니다.

다시 열지 못할지니(1-3)

(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그’는 천사이며, ‘나’는 에스겔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성소의 동문 밖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동문을 보니 닫혔다고 합니다. 동문이 닫힌 이유를 하나님께서 2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돌지니라

하나님께서 동문을 의도적으로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해 성소에 들어오셨는데 그 동문을 닫게 하신 이유는 앞으로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만드셨고 그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셨다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은혜를 받아 큰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전개입니다. 그렇기에 동문을 닫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막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 밖으로 나가시지 않

겠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동문이 아닌 성전의 다른 문을 이용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에서 택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시며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조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 주심으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하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3)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닫으신 동문으로 들어올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왕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와야 합니다. 왕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함으로 세상의 높은 권력과 지위를 가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전심으로, 주목하여, 귀로 듣고(4-8)

(4)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천사가 동문 밖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북문을 통해 성전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기에 에스겔 선지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같은 공간에 교우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다함께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지킬 것을 강조하십니다. 5절에서 ‘전심으로’가 2회, ‘주목하여’가 2회, ‘귀로 듣고’가 1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전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율례가 있는데 이 모든 법을 마음을 다하여 눈으로 주목하고 귀로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의 표준 새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 표준새번역)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주의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그 모든 율례를 너는 명심하고, 네 눈으로 확인하고,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귀와 성소의 모든 출구들을 명심하여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지켜야 할 모든 법을 ‘마음’과 ‘눈’과 ‘귀’로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5절 끝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출입이 금지된 문과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문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자로서 지켜야 할 법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떻습니까? 에스겔 선지자 환상은 구약 성전 개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집회, 모임 등에 확대 적용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시간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린다고 한다면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도 모를 정도의 무분별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6절의 ‘반역하는 자’, ‘가증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룩한 곳에서 과거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는 과거로 충분했으니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반역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증한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7절에 있습니다.

(7)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온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에 이방인이 참여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만 이스라엘 회중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이방인은 유월절의 떡을 먹을 수 있고 제사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성전출입과 제사를 위한 성소출입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할례도 형식적인 육체적 할례만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할례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형식을 갖추더라도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형식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형식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수종들게 되리라(9-14)

9-14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 중 제사장들의 ‘그릇 행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 사람 중 제사장들이 자신이 지켜야 할 사명을 어이없게 다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이로 인해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레위 사람 중 제사장들이 자신의 일을 부적격한 사람에게 맡긴 ‘그릇 행함’ 이외에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에 대한 죄악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우상을 위해 수종을 들어 자신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는데 그 죄악도 그들이 담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일을 범한 레위 사람 중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시겠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13)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아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자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할 것인데 10절과 14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성전에서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와 관련된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하

나눔을 위한 성전 일에 귀천이 없겠으나 제사장이 죄악으로 인해 제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수치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사장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제사 업무를 하지 못하겠지만 영구히 성전 밖으로 쫓겨나지 않고 성전에 남아 수종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손 놓지 않고 무엇이랄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직분을 지켰은즉(15-31)

(15)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죄악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 중 사독의 자손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다(민 25:1-13, 왕상 1:38-53, 왕상 2:26-27). 이들은 성소의 직분을 지켰습니다. 사독 계열은 엘르아살 계열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달리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 아비아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에 섰다가 솔로몬 왕으로부터 파면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소의 직분을 제대

로 지키지 못한 레위 사람 중 이다말 계열 제사장들에게 제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다양한 봉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모든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중심의 봉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봉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는 안뜰에서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19절에서는 바깥뜰로 나갈 때 거룩한 옷인 베옷을 벗고, 들어오기 전에 입고 들어왔던 옷으로 다시 갈아입으라고 하십니다. 20절에서는 머리털을 밀지도 말고 길게 자라게도 말고 적절한 길이로 이발하라고 하십니다. 21절에서는 안뜰로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십니다. 22절에서는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와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출선수범할 때에 백성들에게 바른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23)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이 먼저 구별되어 거룩해질 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24절). 목회자가 바로 서야 교우들이 바로 설 수 있고, 선생님이 바로 서야

학생들이 바로 설 수 있고, 부모가 바로 서야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고, 정치인, 경제인, 법조인, 공무원, 언론인이 바로 서야 국민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 교회 밖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팎에서 평화의 연결고리, 평화의 경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28)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새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생활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들의 생계는 제사의 제물과 각종 처음 익은 열매로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물질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내가 곧 그 기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본 구절은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복의 수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사장은 복을 빌 뿐입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성전 맡은 사

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듯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입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심으로 교우, 가족, 이웃과 함께 지어저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억압의 시대에서 벗어나 광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저희와 영원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새 성전과 새 예배의 환상을 통해 신약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죄인을 영벌에 처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도의 자손 레위 사람처럼 이 시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게 하시옵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입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동문을 닫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3.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심으로', '귀로 듣고', '주목하여' 할 모든 법을 오늘날 예배에 적용해 본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4.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5.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레위 사람들의 행동과 그 결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함께 잘 지어져 가기 위하여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봉사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제비 뽑아 기업으로 삼을 때에

에스겔 45:1-25

1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2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오백 척이요 너비가 오백 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십 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3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들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4 그 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5 또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6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오천 척을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7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려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8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9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0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밧을 쓸지니 11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밧은 십분의 일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십분의 일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12 세겔은 이십 게라니 이십 세겔과 이십오 세겔과 십오 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13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육분의 일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육분의 일 에바를 드리며 14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십분의 일 밧을 드릴지니 기름의 밧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십 밧 곧 한 호멜이며 (십 밧은 한 호멜이라) 15 또 이스라엘의 율탁한 초장의 가축 때 이백 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6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17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추지니라 18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19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20 그 달 칠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21 첫째 달 열나흘날에는 유월절을 칠 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22 그 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23 또 명절 칠 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레 동안에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이며

또 매일 솟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24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솟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힌 씹이며 25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칠 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거룩한 구역(1-8)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인 40-48장은 새 성전과 새 제사(예배), 새 땅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중에서 40-43장은 새 성전에 관한 말씀이고, 44-46장은 새 제사(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44장에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나타내는 동문 폐쇄 명령과 이 예배를 인도하고 주재하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의 직무 수행과 다양한 규례 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땅의 통치와 절기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1-8절은 새 땅이 거룩한 곳임에 대해 증거합니다.

(1)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유다(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을 나누어서 각 지파의 기업으로 삼을 때, 그 방법은 ‘제비를 뽑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 땅을 나눌 때도 ‘제비를 뽑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각 지파의 능력대로 땅을 차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비뽑기가 아니라 능력대로 했다면 영향력이 큰 지파는 수자원이 풍부하고 넓은 평야가 있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을 것이고, 영향력이 작고 인구수도 미미한 지파는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비를 뽑으면 어느 지파에게 어떤 땅이 떨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가장 연약한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의 중요성은 그 땅이 자신들이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비뽑기만이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제비뽑기는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뽑은 맛디아가 마지막입니다. 안디옥교회가 바나바와 사울(바울)을 뽑을 때 제비를 뽑지 않고,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기업으로 제비 뽑은 땅 중에서 한 구역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그 땅의 길이가 25,000척(13km)이고, 너비가 10,000척(5.2km)입니다. 면적으로는 67.6km²(2,045만 평)입니다. 이 면적은 서울시의 10분의 1이 좀 넘고, 우리 교회가 있는 마포구의 약 3배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제비뽑은 땅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여 드린 땅뿐만 아니라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일예배 시 인도자가 봉헌기도를 드

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예물로 올려드립니다’와 같이 고백하는데, 그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2)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오백 척이요 너비가 오백 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십 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제비 뽑은 땅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부분을 먼저 정했는데, 그중 성소에 속할 땅을 가장 먼저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로와 세로)가 각각 500척(260m), 성소 외부의 길이와 너비 50척을 더하면 성소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550척(286m)입니다. 면적으로 하면 약 81,800㎡ (24,743평)입니다.

(4) 그 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길이 25,000척, 너비 10,000척의 광활한 땅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라고 한 이유는 제사장들의 주거지와 성소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이 제사장의 기업(유산)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유산)도 주지 말고, 산업도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과 산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44:28). 이 땅은 제사장들의 주거공간으

로만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거공간을 확보해 준 것은 그들이 더욱 자신들의 기본 사역인 온전한 예배(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새 땅의 가장 중요한 의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5) 또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또 다른 길이 25,000척, 너비 10,000척의 땅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마을 20개를 세우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면적은 마포구의 3배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마포구에는 16개의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큰 20개의 마을을 세울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역시 성전에서 예배(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새 땅에서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6)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오천 척을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레위 사람들의 20개 마을 옆에 그 땅의 절반에 해당하는 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곳은 ‘여호와와삼마_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라고 불리게 될 성읍이 만들어질 곳입니다.

(7-8)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왕의 땅에 관한 내용입니다. 1-8절을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정사각형이 가로세로 각각 5개씩 25개의 칸으로 된 땅이 있습니다. 그 중 첫째 줄과 둘째 줄, 10개 칸은 ‘레위 사람들의 거주지_20개 마을’입니다. 셋째 줄과 넷째 줄 10칸은 제사장들의 거주지인데, 셋째 줄 중간에 성전이 있습니다. 전체 중심에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줄 5칸은 경작지입니다.

25칸 위와 아래가 이스라엘 지파가 살게 될 땅이고, 25칸 오른쪽과 왼쪽이 왕의 소유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왕이 다시는 백성을 압제하지 않고(아합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처럼), 보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통치자들의 통치 법칙(9-17)

9-17절은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려야 함과 통치자들이 백성에게 받은 것을 다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9)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통치자가 버려야 하는 것은 ‘포악’과 ‘겁탈’이고, 행해야 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라고 합니다. ‘포악’은 법을 어기거나 무시하고 짓누르는 것이고, ‘겁탈’은 포악의 결과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정의(미슈파트)’는 올바르게 재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천하는 것이고, ‘공의(체데크)’는 이웃을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행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는 다양한 무게 단위가 나옵니다.

- 에바(고체 부피) = 밧(액체 부피) ⇒ 약 22 l
- 호멜(낙타 한 마리가 질 수 있는 무게) = 고르 = 10에바 또는 10밧 ⇒ 약 220 l (108-162kg)
- 세겔(4일치 임금, 11.5g) = 20게라 / 5게라 = 1일치 임금
- 마네(신약의 므나) = 60세겔(240일치 임금)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 신실한 사회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른 저울을 사용하고 속이지 않는 것, 즉 모두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하고 완성이 됩니다.

(13-15)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육분의 일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육분의 일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십분의 일 빛을 드릴지니 기름의 빛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십 빛 곧 한 호멜이며 (십 빛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 때 이백 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밀이나 보리를 1호멜(10에바) 수확하면 1/6에바를 드리라고
 합니다. 즉 수확량의 6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1
 고르(1호멜, 10빛) 수확하면 1/60빛을 드리라고 합니다. 즉 수확
 량의 100분의 1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 때 중에서는
 200마리를 목축하면 1마리를 드리라고 합니다. 즉 키운 것의
 200분의 1을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설명이 좀 더 붙어 있
 습니다. ‘윤택한 초장’에서 키운 것입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
 미는 ‘물이 넉넉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목초가 풍성한 지역
 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물이 잘 흐르는 곳에서 좋은 목초를 먹
 고 짐승들이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
 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
 하는 것입니다.

(16-17)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그런데 새 땅에서 예물을 드릴 때 제사장에게 직접 드리지
않고, 군주를 통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쳐야
한다는 것과 그 땅에서는 군주(왕)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전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드리
지 않았고, 왕도 군림하기만 했고, 우상숭배를 조장했기 때문에
그런 삶에서 떠나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18-25)

18-25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와 그때 드릴 제물
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8)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20) 그 달 칠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정월 초하루와 7일에 흠 없는 수송아지 1마리를 드려서 그

피를 성전 문설주, 제단 아래 네 모퉁이, 안뜰 문설주에 바르라고 합니다. 새 땅에서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21) 첫째 달 열나흘날에는 유월절을 칠 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25)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칠 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유월절과 초막절(장막절)을 지키는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을 떠난 것을,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상징합니다. 새 땅에서 살게 되더라도 처음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전도 없었고, 자기 명의로 된 땅 한 평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비 뽑은 땅에 제사장들의 주거지와 성전을 짓고, 레위 사람들이 살 마을을 만들며,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고, 유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중요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회복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며, 지금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야 할 길을 신실하게 걸을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아서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신실하게 걷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나 지나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 지도 14년이나 지나 더 이상 돌아갈 소망이 없다고 여길 때에, 하나님께선 제비로 뽑은 땅에 성소와 제사장들의 거처를 지을 것과 레위 사람들의 마을들을 세울 것을 명하시고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실 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저울을 바르게 사용할 것과 절기들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에 저울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으며, 여러 절기를 신앙의 명절로 바르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누릴만한 능력과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주셨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절기를 바르게 지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야 할 길을 걷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아 나누어 주는 땅은 거룩한 곳이며, 성소를 위한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당신의 삶의 영역에 구별된 곳은 어디입니까? 당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2.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정직한 행함은 저울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바른 저울(원칙)을 사용함으로 얻은 이익과 바르지 못한 저울(원칙)을 사용함으로 겪은 낭패는 무엇이었습니까?
3. 하나님께서는 새 땅에서도 유월절(무교절)과 초막절(장막절, 수장절) 등을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얻은 구원을 어떻게 승화시키고 있습니까?
4. 삶의 자리를 거룩되게(구별되게) 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으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회복될 예배공동체

에스겔 46:1-24

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옛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2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3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4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라 5 그
 소제는 숫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힌 썩이니라 6 초하루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숫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7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
 가루 한 에바요 숫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
 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힌썩이며 8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9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
 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
 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
 로 나갈지며 10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
 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11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

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솟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힌씩이며 12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13 아침마다 일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14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육분의 일 에바와 기름 삼분의 일 힌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15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16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니 이는 그 기업이 이어 받음이어니와 17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 받을 것임이라 18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19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20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나라 하시고 21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22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마흔 척이요 너비는 서른 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23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24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는 것이니라 하시더라

회복될 예배공동체(1-15)

에스겔 46장은 40-43장에서 언급한 새 성전에서 드러질 새 제사에 대한 설명 중 특히 45장 절기의 제사에 이어서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포로시대에 회복될 예배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망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회복될 예배의 모습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옛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평시에는 닫혀있다가 안식일과 초하루 제사를 드릴 때 열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군주라도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없었으며, 바깥 문 현관을 통해 들어와 문 벽 곁에 서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의 군주라 할

지라도 철저하게 성전의 법을 지켜야 했고 스스로 부정한 죄인임을 인지하며 거룩한 곳을 구별하여 멈춰 서야 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군주라 할지라도 성전에 찾아와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면서 멈춰 서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들을 통해 스스로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멈추어 엎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공을 위해, 권력을 위해, 이익을 위해 달려가던 인생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멈추고 엎드리는 그 시간을 가지며 삶의 본분을 기억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교만함에서 벗어나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군주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3-4)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라

새 성전 제사의 특징 중 하나는 군주가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5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주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하였고, 17절에는 군주의 본분은 번제, 소제, 전제를 명절, 초하루, 안식일, 정한 명절에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갖추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왕의 땅을 많이 배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군주가

백성들이 자신에게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많은 땅을 주신 이유를 망각하게 되면 그 많은 물질을 자신의 향락을 위해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군주에게 물질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 주신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속죄의 제물로 드려져야 할 제물을 준비하는 책무 속에서 그 물질은 구체적으로 선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과 땅을 주신 것은 나의 향락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군주는 그 책무를 감당하면서 스스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었고 또한 물질보다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에는 절기 때 드리는 제사의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 질서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9-10)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마치 일방통행 도로처럼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예배를

마치고 성전 남문으로 나가야 했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동 경로를 이렇게 설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시며 영적 질서의 중요함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통행 질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질서를 언급하십니다.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군주도 무리 가운데에서 함께 들어오고 함께 나가야 함을 알려 주십니다.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가장 높은 군주까지도 그 질서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성전 안 질서를 확립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 앉아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의 질서의식까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배공동체는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예배캠페인, 차량캠페인 등 예배 시 지켜야 할 질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서들을 잘 지킬 때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또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지켜보고 있는 이웃 주민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질서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군주의 기업(16-18)

16-18절에는 군주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1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 받음이여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 받을 것임이라

첫 번째 원칙은 희년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 50년이 되는 해에 모든 땅을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군주도 자녀에게 그 기업을 상속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었지만 군주는 종에게 땅을 선물로 주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희년에 다시 군주에게 그 땅을 돌려라고 명령하십니다. 군주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그 땅을 회수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땅의 원주인이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인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군주가 땅을 종들에게 영구히 주었을 경우 그것이 쌓여 부족한 자신의 땅을 늘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을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45장 9절에 이미 언급된 ‘정의와 공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 권력으로 부를 축적하려 하고 부가 있는 사람은 권력에 기대 자신의 부를 늘리려고 합니다.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만족해야 하는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에 자신의 권력을 통해 아합 왕처럼 백성의 땅을 빼앗기도 하고, 다윗 왕처럼 백성의 아내를 빼앗는 죄악을 범하기 쉬었습니다. 또한 청탁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악용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안에서 머물며 권력을 통해 백성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군주가 드려야 할 성전 예배의 내용 뒤에 이어서 군주가 드려야 할 생활의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서만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동문 앞에서 멈추어 자신의 위치를 지켰듯, 절기 때 백성들과 함께 들어와 함께 반대편 문으로 나가는 질서를 지켰듯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의 원리에 기대어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예배자의 삶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이 군주

와 같이 ‘정의와 공의의 명령’ 가운데 기대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물 흐르듯 흘러가는 세상을 소망하며 흘러가는 작은 물줄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권력으로 부당한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나의 부를 증식하기 위해 타인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강물처럼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성전의 부엌(19-24)

이어서 늦같이 빛나는 성전 안내자는 에스겔을 데리고 제사장의 부엌을 보여줍니다.

(19-20)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나라 하시고

제사장의 부엌은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삶고 소제 제물을 굽는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가 성전 안뜰과 연결되어 있었던 이유는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바깥뜰로 가져가지 않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

제로 드러진 제물 같은 경우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는데 거룩한 고기이기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화목제의 고기도 부정한 자가 먹거나 만지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하물며 속죄제, 속건제의 고기를 부정한 자가 만지거나 먹게 될 경우 화를 입을 수 있기에 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장소 자체를 구별하여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어린아이가 위험한 칼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부모는 부엌 높은 곳이나 깊숙한 곳에 숨겨둡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의 행동이 자녀를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에 찔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에 출입통제와 갖가지 분리와 구별이 있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방법이며, 우리가 부정함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구별된 선택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안내자는 바깥뜰에 있는 부엌을 보여줍니다.

(21-24)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마흔 척이요 너비는 서른 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바깥뜰 네 모퉁이에 있는 고기 삶는 방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의 공동식사를 위한 고기를 삶는 곳입니다. 화목 제물과 같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을 그곳에서 함께 요리하여 먹으며 바깥뜰에서 예배자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였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며 교제하는 그들의 모습은 참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부엌이 모퉁이마다 4개나 존재하였다는 것은 새 성전에서 이루어질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회복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배공동체는 성도의 교제도 풍성히 나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떡을 나누며 교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식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며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를 소개할 때 ‘교회 식구’라고 표현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모든 교회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할 수는 없지만, 4개의 부엌에 각기 나누어져 식탁의 교제를 나눈 에스겔 성전의 공동체처럼 우리는 교구와

구역으로 나누어져 성도의 교제를 가지며 끈끈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홀로 쓸쓸히 북문으로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남문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부엌에 함께 모여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받은 은혜를 고백하던 사람들처럼 구역에 속하여 많은 교우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이어가실 수 있기를 축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회복될 예배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예배의 기회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거룩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또한 에스겔의 성전을 보면서 자신들이 잃어버린 예배공동체의 모습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절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군주라 할지라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백성들과 함께 한쪽 문으로 들어와 한쪽으로 나가는 질서 공동체, 군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자신의 땅을 함부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줄 수 없고 또한 약한 자의 땅을 권력으로 빼앗을 수 없는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을 구별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시는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선택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서 각기 모퉁이 4개의 부엌에서 삶겨온 고기들을 먹으며 나누어져 끈끈한 사랑을 나누었던 사랑과 교제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예배공동체가 살아가기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한 명, 한 구역이 모여 질서를 지키고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행하며 세속적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사랑으로 교제하는 우리 모습이 회복된 에스겔의 성전이 되며 그것이 예배공동체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회복의 길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공동체의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배자로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면서 무질서한 모습은 없었는지,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굽게 하는 탐욕의 모습은 없었는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동화된 모습은 없었는지, 누군가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하지 못하는 나홀로 예배자의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회복된 질서와 공의와 거룩과 교제가 오늘 우리의 예배공동체에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회복될 예배공동체를 꿈꾸며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백성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군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군주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을지 묵상해 봅시다.
2. 절기를 맞이하여 예배하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기 들어온 반대쪽 문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왕 또한 그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내가 예배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질서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3. 최고의 권력자인 군주도 자신의 땅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백성의 땅을 힘으로 빼앗을 수 없었던 공의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할지 묵상해 봅시다.
4. 제사장의 부엌이 안쪽뜰에 있어야만 했던 이유와 바깥뜰에 있던 부엌과의 차이점을 생각하며, 예배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하는 거룩함과 교제가 무엇이며 내 삶에서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삶의 결단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에스겔 47:1-23

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2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3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 다시 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6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넬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1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
 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13 주 여호와께서 이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14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
 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15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
 귀까지니 16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핫디곤이라 17 그 경계선
 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18 동쪽
 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 강이
 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19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므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
 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20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21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22 너희는 이 땅을 나
 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
 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
 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
 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23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창세기의 처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파괴된 후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약속하신 것처럼 에스겔서의 구조도 창조, 파괴, 재창조의 형태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에스겔은 마지막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유기된 지상의 성전 대신에 거룩한 성전,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가득 찬 성전을 보았습니다(40-43장). 44장은 예배를 수종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회복되고, 45-46장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에스겔의 환상은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내부적으로 온전히 회복된 후에는 밖으로 미치게 될 영향력으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1-12)

(1-2)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안내자인 천상적 존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렀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통과하여 갈 수 없으므로 북문 곁을 지나 그 문의 남쪽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보

왔습니다. 물은 바깥뜰의 동편 문을 지나 밖으로 흐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넘실거리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스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물이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던 것처럼, 스며 나오는 물은 에스겔이 그곳을 따라 돌아볼수록 점점 더 많아집니다.

(3-5)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서의 한 척은 약 52cm이므로 천 척은 약 520m입니다. 동쪽으로 나아가 천 척을 측량하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다음 천 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니 개천처럼 무릎까지 오릅니다.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니 허리에 오르고, 마지막 측량 후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신비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간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들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강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시작되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과 경험이 날마다, 해마다 점점 깊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신앙의 깊이가 발목인지, 무릎인지, 허리인지, 온몸이 잠겨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목회자인 어거스틴은 ‘두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을 잊어버리게 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각 교우님들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고난을 넘어서는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7-8)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강의 깊이를 가늠한 경험 이후에 에스겔은 강 좌우의 심히 많은 나무를 보았습니다. 에덴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오고, 수많은 비옥한 나무가 있었던 것을 떠올릴 때, 에스겔이 환상 속에 본 수많은 나무는 새 시대를 위한 새 창조임을 암시합니다. 에덴동산과 마찬가지로 놀라운 생명력의 원인은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강이 동산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오기 때문

에 새 창조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안내자는 에스겔에게 이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 즉 사해에 이르러 사해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아라바는 갈릴리해 남쪽을 따라 사해와 아카바만으로 이어지는 요단 계곡입니다.

9-10절을 보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들과 수많은 고기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11-12절에는 강 양쪽의 과실나무가 자라 잎이 시들지 않고, 과실들은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합니다. 창조 기사의 특징이 또다시 나타나 에스겔의 환상이 바로 새 창조임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에 등장한 새 창조의 환상은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와 신약의 사도 요한에게까지 연결되어 더 풍성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스 13:1)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 14:8)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요 7:37b-38)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거하는 새 성전을 예수님의 인성에서 영적이고 상징적인 성취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임을 밝혀줍니다(요 4장). 또한 연중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고, 광야생활의 역사를 돌아보는 유대인들의 명절, 장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서는 일어나셔서 모든 목마른 자를 초청하시고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 그들의 반을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도 바로 이 모든 것을 살게 하는 물이 죽은 사해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여호와와의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불순종하여 포로가 되어 바벨론과 온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데 실패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포로의 때가 마지막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흩어진 주님의 증인들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민족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살아나고 생명의 강에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맡겨진 복음은 성령의 바람으로 시간과 공간의 물결을 타고 수많은 선교사를 통하여 동방의 나라,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보이는 것은 어두움밖에 없다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린 선교사들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가정과 직장 and 삶의 모든 자리에 흘러넘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

게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셨던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땅의 경계선과 분배(13-23)

(13-14)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에스겔에게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강을 꼼꼼히 살펴보게 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세대의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위해 땅의 경계를 선포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성소를 섬기기 위하여 성소 주변에 기업을 가졌기 때문에 열외하고, 장자의 기업을 얻은 요셉 지파에게는 두 몫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여태껏 이스라엘이 통치했던 영토보다 더 크고, 심지어 다윗 왕국의 절정기 때보다도 더 넓습니다. 그러나 크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동일한 땅의 지경이라는 사실입니다(민 34:1-12).

옛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동안 당신의 약속들을 이루어주시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반

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어김 없이 이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은 약속대로 결국 주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분배와 다른 점은 새 창조를 통해 상속받는 기업은 지파별로 똑같은 크기로 공평하게 분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열두 지파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리키는 모형이라는 점에서 아주 공평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에 대한 설명을 또 다른 환상인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지파의 숫자가 동일하게 12,000명이라는 것을 통해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계 7:5b).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은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적신 땅은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기업입니다.

(시 37:11)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다

(마 5: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시편 37편과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차지한다고 표현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얻게 되는 땅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처소입니다. 에스겔이 묘사하는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분깃은 가나안 땅이 언제나 가리켰던 하늘나라의 영적인 처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오해하여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부를 소유하는 데 지나친 관심을 갖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22-23)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복음 안에 수여되는 영광과 은혜의 기업의 또 다른 특징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방인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원수같이 여겨지고, 열등하게 여겨지지 않고 차별 없이 이웃과 형제로 여겨집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 노인과 어린아이, 부와 지식을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자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공평하심을 만족하고 기

빠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의 본질로 날마다 돌아가 무너진 관계는 회복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인다워질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사람을 살리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기쁨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된 성전의 영광이 우리에게 밝히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매일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여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소망함으로 주어진 하루의 자리를 책임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비록 좁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이 길 위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2.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나의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3. 열두 지파가 기업으로 받는 땅의 경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4. 하나님께 상속받은 나의 기업은 무엇이며 그 기업을 나는 어떻게 여깁니까?

여호와삼마라 하리라

에스겔 48:1-35

1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는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뫍이요 2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뫍이요 3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뫍이요 4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뫍이요 5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뫍이요 6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เบน의 뫍이요 7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뫍이요 8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이만 오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뫍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9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10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이만 오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이만 오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와 성소가 있게 하고 11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12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 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13 제사장의 경계

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
 이라 14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
 임이라 15 이 이만 오천 척 다음으로 너비 오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
 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16 그 크기는 북쪽도 사천오백 척이요 남쪽도 사천오백 척이요
 동쪽도 사천오백 척이요 서쪽도 사천오백 척이며 17 그 성읍의 들은 북
 쪽으로 이백오십 척이요 남쪽으로 이백오십 척이요 동쪽으로 이백오십
 척이요 서쪽으로 이백오십 척이며 18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 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 척이요 서쪽으로 만 척이
 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19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20 그런즉 예물로 드리
 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도 이만 오천 척이라 너
 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
 이니라 21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
 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이
 만 오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이만 오천 척이라 다른 몫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
 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22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23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
 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24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
 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25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잇사갈의 몫이요 26 잇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블

론의 몫이요 27 스블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28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므리바가데스 샘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29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30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사천오백 척이라 31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32 동쪽의 너비는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33 남쪽의 너비는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잇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블론 문이며 34 서쪽도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35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48장은 새 땅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입니다. 앞서 47장 13-23절까지가 새 땅의 외적 경계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48장 1-29절까지는 그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30-3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문들과 성읍의 새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땅의 분배(1-29)

땅 분배와 관련해 1-7절까지는 북부 땅 분배를, 8-22절까지는

중심부의 땅 분배를, 그리고 23-29절까지는 남부 땅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뒤편이요

1절 전반부에 언급된 것처럼 땅은 모든 지파에게 배분될 것입니다. 어느 한 지파도 예외 없이 모두 땅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간 지파들의 면모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는 각기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지파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려 애쓴 반면, 너무나도 불충하여 땅을 배분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전혀 할 말이 없는 지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지파도 제외하지 않으시고 땅을 배분해 주실 거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우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며, 때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불충을 범할 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다려주시며 끝까지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을 둡니다. 능력에 의해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기에 능력 없는 사람은 존재 자체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지워버리는 곳,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에 따라 사람에게 차별을 두시는 분

이 결코 아니십니다. 존재 자체에 가치를 두시기에 우리의 그 어떠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여길 수 밖에 없는 현실과 상황 앞에서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한 번 사랑하시면 지우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8)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이만 오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8-22절까지는 중심부의 땅 분배에 관한 내용으로 그 중 가장 처음에 기록된 8절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질 땅’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8절은 그 땅의 중앙에 성소를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파들의 충성도에 관계없이 모든 지파에게 땅을 배분해주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것처럼 조건 없이 땅을 분배해 주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일부를 다시 예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땅을 먼저 제외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배분해 주셔도 되는데 먼저 주신 후에 다시금 주신 땅에서 일부를 그것도 지파들에게 분배될 땅들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울러 그 중앙에 성소를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서 지우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그들이 마음과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그 사실을 잊고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찾으려 우상을 숭배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회복될 새 땅에서는 다시금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가장 중심부의 땅을 다시 헌납하게 하시고 그 땅의 중앙에 성소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항상 인정하고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일종의 경계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매일이 소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우리 영혼의 민감성을 유지시켜 주는 우리 영혼의 안전장치가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며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이유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가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정체성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서 잊지

않으려면 주일예배를 우리 삶의 중심에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구심점 역할을 하며 우리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 향하게 함으로 한 주간을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11-12)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할 땅’ 중 가장 거룩한 땅을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레위 지파의 자손이 잘못된 길로 간 것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책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잘못된 길로 걸어간 사람도 지우지 않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편한 길, 쉬운 길로 걸어갈 때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좁은 길로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상을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상을 당대에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7장 1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동일한 땅의 지경이라는 사

실, 곧 옛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며 상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에 걸맞은 상으로 우리 삶에 화답해 주십니다.

(15) 이 이만 오천 척 다음으로 너비 오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예물로 드릴 땅’ 중 가장 거룩한 땅을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주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의 일부를 또한 레위인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13절). 아울러 그 땅의 일부를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워서 거주지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빈터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속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홀’은 문맥상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정함’의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성읍을 세울 땅이 바로 ‘예물로 드릴 땅’, 곧 ‘거룩한 땅’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고려할 때, 본문의 ‘속된’이라는 단어는 ‘거룩’과는 상대적으로 구별되는 ‘평범함’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로 드릴 거룩한 땅에 성읍, 곧 평범한 삶의 터전 또한 자리 잡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은 일상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전부터 예배당 안과 밖을 성과 속으로 구별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예배당 안은 거룩한 땅인데 반해 예배당 밖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는 속되 보이는 평범한 삶의 터전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에 속한 땅이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가꾸어 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생업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이기에 우리의 직업은 곧 성직이며 우리 삶의 현장은 곧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할 성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변모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21-22)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이만 오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이만 오천 척이라 다른 뭇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본문 21-22절은 군주, 곧 왕에게 배분될 땅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왕의 땅이 거룩한 땅과는 구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거룩한 땅은 정사각형의 땅이며 이스라엘 전

체의 중심에 있고, 그 가운데 성전이 있지만 왕의 땅은 거룩한 땅의 외곽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록 왕이라는 직분이 중요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봉사팀원, 봉사팀장, 권찰, 구역장, 교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등 다양한 직분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직분들의 공통 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나가는 것을 돕는 데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고 열심을 다할 때 그 열심은 오히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성도들의 주님과의 연합을 방해하는 그릇된 열심으로 작용하게 될 뿐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야 함을 늘 기억하는 것, 교회 내 직분자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봉사 강령입니다.

예루살렘 성문들과 성읍의 새 이름(30-35)

(30-35)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라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사천오백 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나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잇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리라

본문 30-35절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의 이름과 성읍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읍의 사방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긴 문들이 동서남북의 각 방향마다 세 개씩 세워질 것입니다. 성읍은 그 너비가 모두 사천오백 척으로 성전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을 이룰 것이며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삼마’가 의미하듯 하나님은 성전에도, 그리고 예루살렘과도 함께하시는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전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심령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성전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생 각 안에서만 지우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우리를 지우지 않고 품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삶의 중심에 모시며 우리 주변인들을 품고 사랑해 나갈 때 우리 삶의 현장은 ‘여호와삼마’ 곧 거기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현장이 될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변인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음을 체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삼마’를 경험하는 그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불충한 저희를 지우지 않고 지금도 품어주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내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변인들을 품고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맡겨주신 삶의 현장을 주님 뜻이 펼쳐지는 거룩한 땅으로 변모시켜 나감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늘 계시는 ‘여호와삼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시고 훗날 주님 앞의 상급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그리고 오늘 거기에도 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영역 중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자신의 직분을 지키며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았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땅을 배분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연계 되는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3.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에서의 신앙 온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여호와삼마' 곧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지우지 않고 늘 기억할 때 연계 되는 신앙의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